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68 1982년 7월 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ly 7, 1982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JUL 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비바 이탈리아" 월드컵서 브라질 꺾어 수만명 거리에서 환희

수만명의 이탤리안들이 모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호각을 불고 자동차경적을 울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6일 하오 월드컵 2차예선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3:2로 이겨 이태리가 준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은 토론토의 30만 이탤리안들뿐 아니라 전세계의 이탤리아노에 자신과 긍지를 심어준 회보였다.

축제분위기에 싸인 토론토 이탤리안들은 세인트·클레어와 더퍼린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을 누비며 밤새도록 이태리의 승리를 자축, 긴급동원된 경찰들이 진땀을 뺐다.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난 이탤리안 축제행진을 지켜본 한 경찰은 "만약 이태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아마 동물원이 무너진것보다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랜스다운·세인클레아지역의 술집주인은 이탤리안 포도주 50여병을 내놓고 흥분에 휩싸인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그룹은 질서를 정리하던 경찰관을 번쩍 안아올리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더퍼린의 술집 앞에는 「고 브라질」이라는 휘장을 두른 관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이겼다"고 외쳐대는 이태리 청년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태리가 월드컵 2차예선에서 브라질을 3: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2면에 계속)

한·카 정상회담

원자로 판매 주의제로 (캐나다측 추진)

캔두3기 추가도입 요청할 듯

(오타와 5일=연합)전대통령과 트루도 수상과의 정상회담중 최우선 의제는 캔두원자로 판매가 될 것이라고 캐나다의 고위 외무관리가 5일 말했다.

오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있을 전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앞두고 트루도 캐나다수상은 금년초 유창순 전국무총리에게 보낸 개인서한에서 연방정부가 캔두원자로를 한국에 추가 판매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고 이 고위관리는 밝혔다.

한국은 이미 678메가와트급 캔두원자로를 캐나다로부터 사들여 경북 월성에 핵발전소를 건설중이다.

캐나다는 총 15억달러 규모의 캔두원자로 3개를 추가로 한국에 팔기를 원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연방정부가 캔두원자로를 시급히 팔지 못하면 캐나다의 핵산업은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1978년 이후 1대의 원자로도 팔지못했다.

맥도날드 신민의원 사퇴

밥·뢰당수의 의석위해

온타리오주 신민당 당수로 선출되고도 자신의 의석을 확보치 못한 밥·뢰를 위해 당 중진인 도날드·맥도날드의원이 사퇴를 발표했다.

밥·뢰의 강력한 지지자인 맥도날드씨는 밥·뢰당수가 보궐선거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다.

신민당은 뢰당수 선출이후 3명의 메트로토론토지역 신민당의원에 사퇴를 권고해왔으나 거절당했다.

6일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한 도날드·맥도날드의원은 1955년 요크·사우스지역에서 선출된 이후 계속 의석을 지켜온 베테랑으로 농업전문비평가이며 대학에서 캐나다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맥도날드의 사퇴가 결정된 이후에도 신민당은 마리온·브라이든(비치·우드바인) 제임스·렌위크(리버데일)및 토니·그랜드(옥우드)의원을 상대로 끈질긴 권유를 계속했었으나 3명 다 사퇴를 거부했다.

◇밥·뢰

낙태를 합법화

한국서 법개정

(서울5일=연합)한국정부는 사생아 수를 줄이고 인구성장율을 억제하기 위해 낙태수술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는 강간, 근친상간, 또는 부모가 유전병을 가졌을 때 혹은 임신으로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때만 허가된다.

소식통에 의하면 여당 민정당과 보사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낙태를 자유화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비합법적 낙태수술을 받는자는 최고 1년 징역, 낙태시술 의사 또는 약사는 최고 2년 징역형을 받는다.

이같은 법에도 불구, 한국서는 낙태수술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

서울신탁은행 폭발물 불발

(서울3일=연합)서울신탁은행 청량리지점내 커피머쉰뒤에 장치됐던 폭발물이 은행직원의 재빠른 행동으로 폭발전 제거됐다.

3일 은행직원 이재구씨가 경찰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날 아침 이씨는 4,950만원(미화$66,900)을 즉각 온라인 번호 50101-8200244 5에 넣지 않으면 커피판매기 뒤에 설치한 원격장치 폭발물이 폭발할 것 이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씨는 커피판매기 뒤로 달려가, 검은 서류가방을 창문밖으로 던졌다.

이씨는 가방속에 10Cm길이의 다이나마이트 3개가 고무줄에 묶여져 있고, 전전지와 타이밍장치로 보이는 부속장치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중이다.

태권도 지위 1보전진

아마·스포츠로 인정

4년전 태권도를 정식 아마추어스포츠로 인정한 마니토바주에 이어 캐나다에서는 2번째로 온타리오주가 태권도를 정식 스포츠로 받아 들였다.

스포츠기구를 관장하는 온타리오 관광오락성 루벤·배츠장관은 온타리오태권도협회 대표 박종수사범에게 보낸 편지에서 "앞으로 1년간 태권도는 체육시설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는 세계기구나 캐나다올림픽위원회등에는 이미 가입했으나 연방기구인 캐나다체육연맹(Sports Canada)에는 가입 못했다.

「스포츠·캐나다」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 주정부로부터 아마추어 스포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캐나다태권도협회(회장 로이드하원부의장)는 각주의 태권도사범들을 통해 아마추어기구 가입을 신청중이다.

쾌벡주와 사스캐치완주에서도 곧 아마스포츠로 인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대화 촉구

민관식위원장

(서울4일=연합)민관식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7·4남북공동성명발표 1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은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민위원장대리는 오해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7·4남북공동성명 기본정신을 북한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이며, 남한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더 이상 정치선전에 이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6천「팔」게릴라 진퇴양난

이스라엘, 식량·물 보급로 차단

(베이루트)팔레스타인·게릴라 완전말살을 목표로 서베이루트에 몰려있는 6천 「팔」게릴라군에 대한 물, 전력, 식량공급을 차단한 이스라엘은 5일 공격의 박줄을 다소 늦추고 팔레스타인측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특사 필립·하비브는 이스라엘과 「팔」측을 왕래하며 협상에 분주하나 6일 아침 현재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내에 명목상의 「팔」군기지 주둔 및 베이루트에 외교사절주둔을 허락할 경우 레바논에서 총철수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스라엘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한편 아싸드 시리아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왕과 수차례 회담을 갖고 PLO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아라파트 PLO지도자는 아랍제국이 PLO에 대한 지지가 미약함을 비난했다. 아라파트의 비난은 지난 4일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대통령이 베이루트에 갇힌 「팔」 게릴라들은 항복의 수모를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살하는게 낫다고 말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PLO는 설상가상으로 소련에 요청한 무력지원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미코 소련외상은 소련은 외교지원 이상의 개입태세가 돼있지 않다 고 말했다.

주택보조금 신청에 독소조항

보험모기지만 해당, 개정할 듯

지난 6월28일 발표된 연방정부 신예산안에 따른 주택보조금이 말썽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나 신주택을 구입하면 3천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3천달러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택구입자들은 수백달러를 더 지불해야 되고 복잡한 수속절차로 여러 주일 기다려야하는등 이런 불장사는 모두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의 잘못은 다름아닌 국가주택법(the National Housing Act)상의 제한규정.

현행주택법에 의하면 보험에 든 모기지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만 주택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제가 된 모기지보험은 주택구입자들이 병들거나 죽을 때에 대비, 채권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었다. 주택구입자는 집을 사기전이 보험을 들어야 하며 전체 모기지 가격의 1%~2%에서 결정된다.

예로서 $8만의 집을 $6만의 모기지를 안고 살때 주택구입자는 $3,000 주택보조금을 받기 위해 $600~$1,2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수의 주택구입자들은 전혀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보조금을 탈 자격이 없다. 이유는 은행, 신탁회사등 중요금융기관에 저당잡힌 모기지만이 주택법에서 요청하는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이자율로 이같은 모기지보험은 보기가 힘들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을 들지않는 모기지를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보험 모기지는 "buy—downs"이나 "vendor take-backs" 등 저이자율을 제공하는 사적계약으로 성립되는 모기지다.

오타와정부는 이같은 잘못을 인정, 브대성장관 폴·코스그로브의 대변인은 지난 2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 한줄의 법안"을 내주경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모기지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2군데 있다. 하나는 공공회사인 「캐나다주택금융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다른 하나는 개인소유회사인 「캐나다모기지보험회사」(Mortgage Insurance Company of Canada)다.

3천달러의 보조금신청은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서 요구 문의사항은: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650 Lawrence Ave, W.
Toronto M6A 1B2

〈사 고〉

"한인민족상"시상식

17일 토론토 한인회관서

본사 제정, 한인민족상위원회 주최 제2회 한인민족상시상식이 오는 17일 하오 4시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에서 거행된다.

학술상권오율(트자이나), 예술상 김영숙(에드몬톤), 공로상 박재선(토론토), 봉사상 김원겸(위니펙)씨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6월26일로 예정됐었으나 타지방 수상자 권오율 박사, 김영숙 여사, 김원겸 박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날 식장에 참석할 수 없어 7월17일로 연기됐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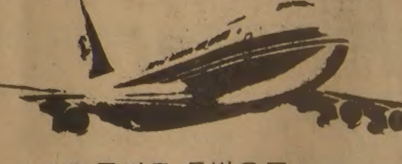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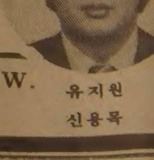
조 의 문

IATA
8.15경축 모국방문단 모집
출발및 귀환 자유 (8.15 경축식 참석및 관광)
등록마감: 7월 15일까지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범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82 월드컵

폴랜드·이태리, 서독·프랑스

이태리 브라질격침 3:2

◆이태리축구의 아들 파울로·로씨가 결승골이 성공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브라질의 골키퍼는 월더·페레스.

(바셀로나-스페인)이태리 저격수 파오로·로씨의 3발의 총성은 위대한 브라질의 삼바댄서들을 고요히 잠재웠다.

월드컵에선 2차리그 C조 브라질대 이태리의 최종전에서 이태리의 3:2 승리는 이태리에게는 준결승티켓을, 패자 브라질에게는 집에 가는 비행기표를 선물로 안겨줬다.

또 다른 우승후보였던 서독은 영국과 스페인이 0:0 무승부를 이루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영국이 스페인에게 2골차이상 이겼을 경우 서독은 탈락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이로써 이미 준결승에 진출한 폴랜드는 이태리와, 프랑스는 서독과 오는 8일 스페인 세비유에서 결승진출의 일전을 벌인다.

월드컵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질의 탈락으로 66년 영국대회이후 최초로 세계축구 양대 진영중의 하나인 남미국가들이 준결승진출에서 전멸했다.

승리감독 이태리의 엔조·베어조트는 "1차예선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패전감독 브라질의 텔러·산타나는 브라질의 패배는 개개선수들의 실수 때문이었다면서 "나는 월드컵우승을 장담하지는 않았다. 브라질도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리승리의 원동력은 「이태리축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로씨의 재기였다.

모종의 금전수수스캔달 때문에 2년동안 출전금지 당했던 로씨는 9주전부터 대표팀에 합류한 25세의 공격수이다.

로씨는 경기시작 5분, 25분, 75분에 각각 골을 기록, 금년 월드컵 사상 4번째 해트트릭 선수가 됐다.

이날 이태리의 승리는 통쾌한 복수의 한판이었다. 이태리는 70년 멕시코 월드컵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4:1로 졌고, 78년 알젠틴 월드컵 3·4위전에서도 2:1로 브라질에 고배를 마셨었다.

한편 브라질의 패배를 TV에서 지켜본 1억2천만의 브라질국민들은 장례식 분위기에 싸여있다.

이번에도 월드컵우승을 장담하던 브라질국민들은 브라질축구 전통의 노란샤츠와 녹색팬츠를 찢어 버리며 울분을 토했다.

6일까지의 개인 골성적과 앞으로 남은 준결승, 결승대진은 다음과 같다.

★1위-4골 칼·하인즈·루메니게(서독), 즈기뉴·보니(폴랜드), 치코(브라질).

★2위-3골 파올로·로씨(이태리), 활카오(브라질), 알랭·기레스(프랑스), 제리·암스트롱(북아일랜드), 라스촐로·키쓰(항가리).

◉준결승 (8일: 목-토론토시각)
11:15 a.m. 폴랜드대 이태리
3:00 p.m. 서독대 프랑스
◉3·4위전 (10일 : 토) 2:00 p.m.
◉결승전 (11일 : 일) 2:00 p.m. Ch. 3,5,12,25

※전 게임을 CBC-TV 영·불어방송을 통해 동시중계함.

섭마린 축구팀 발족
최재전씨 운영비부담

고려식품점에서 샘스 섭마린(Sam's Submarine)을 경영하는 최재전(33)씨가 섭마린 축구팀을 구성, 오는 10일 캐나다한인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교민친선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주로 13학년과 대학생등 청소년으로 구성된 이 팀의 운영비는 최씨가 전액부담하고있다. 최씨는 작년도 코리아타운번영회 사업부장을 지냈으며 한인회관 이전건립기금등 각종행사에 남모르게 찬조금을 내는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

교민친선축구대회는 이토비콕 센테니얼공원에서 개최된다.

◆ 바로 잡음 ◆

7월5일자 본지 제2면의 "정동훈 도예전" 기사중 "오는 17일까지 2364 Yonge St.(Eglinton 북쪽)의 카페식 화랑 (쉐·카푸신느)에서 열린다" 부분이 가려져 나갔기에 다시 알려 드립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1>

冷血 ⑤

그녀는 호텔서 따귀를 한대 얻어맞고…

입을 벌려 악이라도 쓰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이목을 꺼려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지 말아요. 모세, 제발 안돼요.』

마침내 옷이 모두 벗어져나갔다. 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듯 그녀의 몸을 애무했다. 그녀는 두 다리를 오므리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그를 막아냈다. 그는몸을 그녀 위로 끌어올리더니 무릎으로 그녀의 정강이를 짓이겼다. 그녀는 너무 아파 절로 두 다리를 벌렸다. 그는 틈을 두지 않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칵하고 침을 뱉었다. 허연 침이 남자의 코언저리에 날아가 붙었다. 그는 멈칫하더니 몸을 일으켰다. 집요하게 파들어오던 행동이 거기서 일단 정지되는 듯했다. 그틈을 이용해 문자는 그의밑에서 몸을 빼냈다. 순간 그녀는 따귀를 한대 세차게 얻어 맞고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다. 얼굴이 얼얼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왜 때려?! 네가 뭔데 사람을 때려?!』

그는 발로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아이구…』

그녀의 입에서는 절로 이런 소리가 나왔다. 배가 찢어지는듯 아팠고 숨을 잘 쉴 수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공포에 젖은 눈으로 모세를 올려다보았다. 꿈꾸듯 아름다운 눈이 허공에 떠있었다. 비로소 그녀는 그눈에 공포를 느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죽은 사람의 눈처럼 차가운 느낌이었다. 공포에 얼어붙은 그녀는 더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다시 한번 차인다면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너무 무서운나머지 가늘게 떨기만 했다.

모세는 침대 위에 비스듬히 드러눕더니

『이리 와!』

하고 위엄있게 말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존대어같은 것은 이제 집어치우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이 떨려 잘 일어설 수가 없었다. 비칠거리며 침대가로 다가가자 그가 손을 잡아 주었다. 그가 이끄는대로 침대 위로 올라가 그의 곁에 드러누웠다. 조금전과는 딴판으로 그가 하는대로 순순히 그녀는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노예가 된 심정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공포로 얼어붙어 있던 몸이 열리자, 이상하게 눈녹듯이 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가는 신음이 흘러나오고 팔다리는 남자의 몸뚱이에 감겨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환희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기쁨, 그것은 공포와 치욕을 초월한 것이었다.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때 안개가 걷히고 천장이 보였다. 두번의 정사가 끝난 것이다. 그녀는 공포와 치욕에 몸을 웅크리면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는 자신을 보고 그가 [illegible]

朴 男 그림

강정숙씨 부동산업 진출
교민의 주택마련에 일익다짐

강정숙(42)여사가 교민사회의 여성 부동산업자 제2호로 등장했다.

최근 부동산중개인면허를 획득,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에서 일하게 된 강여사는 70년 8월 이민온 후 최근까지 몬트리얼은행 데이터·센터의 수퍼바이저로 일했었다. 강여사는 주택매매에 관한 교민, 특히 여성들의 문의상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숙 씨

이민전에 다년간 전매청 인사행정을 맡았었다는 강씨는 연합교회 장로 강철용씨의 부인으로 1남1녀의 어머니이다.

부동산업으로 관심을 돌린 것은 집을 사고 팔때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편하고 경제적 손실을 겪는 사례가 많은 점을 느낀 때문이라고.

여성 부동산업자 제1호는 A.E.르페이지 회사의 우덕이씨이다.

강씨의 전화번호는 449-8644(B) 745-1915(R)이다.

평점 97.9의 강형재군
13학년 전체수석 졸업

◆강형재군

스카보로의 강만근·이정숙씨의 장남 강형재(Jae Kang)군이 13학년과정을 평점 97.9로 전교수석으로 졸업했다.

찰스·고든·퍼블릭스쿨을 졸업한 강군은 수학에 특히 뛰어나 교내 수학특상을 받았는데, 원저·워터루대등 각 수학경시대회에도 학교대표로 출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책읽기를 취미로 한 강군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이 장래의 희망이라고.

강군의 부모는 74년 이민, 현재 상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강군의 동생 스티븐군도 수학등 학업성적이 뛰어나 부모의 자랑이 되고 있다.

젊은 신자부부들 신심수양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의 젊은부부클럽 대건회(회장 한기연)는 오는 11일(일) 상오9시30분 해밀턴 Bront Creek Provincial Park 에서 신심수양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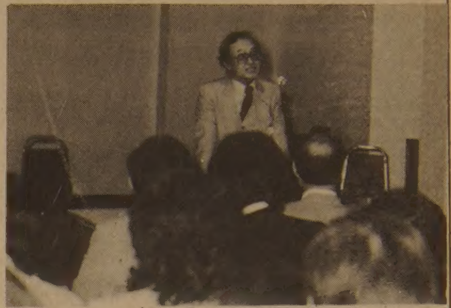
이번 수양회의 지도강사는 문신학생.

대건회는 한국 최초의 신부로서 신앙 영웅인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따서 젊은 신자 부부의 성화를 위한 단체이다.

〈제 3 회 한맘교육강좌〉

가정에서의 책읽기 〈1〉

이 석 현(문인협회 고문)



◆한맘교육강좌에서 강의하는 이석현씨

1. 도 입

(가)사람의 위대성

사람은 영혼(정신)을 가졌기에 위대하다. 사람의 영혼은 천지·우주를 주고도 바꿀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하였다.

사람의 가치, 그 위대성은 (1)미를 알고, (2)정서를 가졌고, (3)창의력(창작능력)을 지니고있다는 점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옛부터 교육의 3대강령으로 지육-머리깨우침(지식·이해력), 덕육-정신도야·마음순화(도의심·정의감·정서·봉사정신), 체육-몸단련(현세생활을 감당해 나갈 체력기르기)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생활예술미의 창조작업"이라고 했다.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전성시대의 아테네 언덕위에서 외쳤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아테네시의 돌틈마다 샅샅이 뒤져, 자기재물 모으기에 급급하면서도 어찌하여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질 가장 큰보물인 어린이들에게 대하여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2천여년전의 그리스시민들과 대조적인 사건이 있다.

10여년전 미국마이애미만에 노지가 선장이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방학동안 전국에서 30명씩 소년을 뽑아 자기의 요트에 태워 미국대륙 연안을 항해 하는 해상훈련을 했다.

한 여름, 모진 풍랑에 배가 파선되어, 선장과 소년 한명만 구조되었다. 그 구조선이 마이애미 항구에 닿자, 죽은 29명 소년의 부모들은 실의에 빠진 선장을 격려하였다.

"당신이 낙심하여 이 일을 중단하면 이 나라 장래는 암담하오. 우리들은 모임을 갖고 100만달러를 모았소. 침몰한 배는 약한 것 같으니 이 돈을 기금삼아 튼튼한 새 배를 지어, 갑판에 죽은 애들의 이름을 구리판에 새겨넣고, 계속 이 일을 해주시오."

(나) 한글교육의 중요성

한글교육의 중요성은 모국어및 모국문화 터득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나라 말을 터득하는 것은 세계하나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학교에서 제2,제3 외국어도 배우는 터에 자기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모국어와 민족문화를 계승못한 민족은 정신적 무국적자가 되고 만다.

언어문화 없는 민족의 비참한 말로를 인디언, 에스키모족등에서 목격할 수 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2천년간 국토를 잃고, 세계각지로 흩어져 살았어도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전통문화, 사상과 역사를 고수하고 계승한 유대민들은 그 정신문화가 죽지 않고 살아, 오늘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족으로 솟고 있다.

2. 전 개
—어린이의 독서

(가) 독서의 효용가치

어린이의 성격형성과 인간육성면에서 독서는 큰 구실을 한다. 독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 세계를 전개시켜 준다.

읽을거리 권장은

(1) 도의심 앙양·정서순화·상상력 고취.

(2) 창의성·판단력(평가능력)·성실성·책임감·협동심을 길러준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면의 도서를 권장하는 한편, 정서적인 책과 종교서적도 권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독서지도의 주안점은 "민주시민 기르기"가 시급하며, 아울러 개발성·진취성을 길러주며,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개척자 정신, 지도자 정신을 싹틔워 주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비판)하고, 자기 힘으로 결심하도록 자립심을 기틀잡아 줄 필요가 있다. 즉, 생각-준비-실행-결과평가.

(계 속)

제5계절

어린이의 독서지도

김 현 순 (미시사가도서관 근무)

지난번 글에서는 이곳 북미어린이의 독서경향을 대개 이야기하였다. 다양한, 그리고 많은 독서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양식이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옛말에 "학교 우등생이 사회 낙제생이 된다"는 것에도 수긍할 가치가 있다. 즉 학교공부만 하는 아이, 학교성적만 잘 따내는아이가 그만큼 폭넓은 가능성이나 문제해결력을 지닐 여지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빽빽하게 짜놓은 공부때문에 깊이 생각할 여유도, 남을 이해할 겨를도,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인생에 대한 무궁한 독창력이나 모험이 싹틀여지가 없게 된다.

많은 책을 읽어보자. 속에 낭만이 있고, 꿈이 있다. 기발한 창의력을 싹트게해 준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즐거움을 맛보게해 주고,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결론도 찾게해 준다. 하나의 책을 안내해 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가치를 다 젖혀놓고라도 많은 책은 읽을수록 학교공부에 큰 도움을 준다. 우선 단어를 많이 알게되고, 좋은문장에 익숙해진다. 좋은 표현방법을 찾게되고, 책의 내용을 빨리 이해하게 된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자. 순식간에 한장씩 넘겨 버린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일수록 많은 독서가 성공적인 학교공부의 지름길이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어떻게 독서를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책을 좋아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부모가 강제로 읽으라는 책이 많을수록 책에대한 흥미를 잃게된다.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읽는 그대로두는 것이 좋다. 만약 읽고 싶어하는 책이 없다면, 그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로서 중요한 일이다.

만약 전혀 책을 읽지 않거나 별로 흥미가 없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어린이가 뒤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아이는 일찍부터 책읽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반대로 늦게 책을 읽기 시작하여도 단시일내에 많은 책을 읽는 아이도 많기 때문이다.

공연히 '너는 책을안읽으니 큰 일이다'는 식으로 부모가 단정하기 때문에 책읽는 것이 정말 싫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런때 이왕이면 일찍부터 책읽는 습관이 길러지면 학교공부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우선 가정에서 독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부모부터 시간이 날때마다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좋은 책이 어떤책이라든가, 어디가서 빌려왔다든가 하는등의 대화를 해야 한다.

어린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 연령에 적합할 듯한 책을 구해서 주는 것도 좋다. 어린이가 읽는책을 부모도 읽어놓고, 자녀와 함께 그 책에대해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어린이의 표현력이 발달한다.

그 책의 줄거리, 느낀 점, 주인공의 성격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된다. 발표할 때 비록 더듬거리더라도 도와주지 말고, 칭찬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그때그때하면 몇번 발표하는동안 어린이는 독창적이고 세련된 발표를 하게 된다.

부모가 말을 막아버리거나 부모의 스타일대로 하도록 지시해 버리면 다음부터 독창적인 자기표현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북미의 기나긴 겨울은 독서를 위한 풍요한 계절이 된다. 온가족이 저녁 한때 모여앉아 책을읽고, 읽은 책을 가족에게 서로 소개 해주면 다목적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

특히 예쁜 독서후감 노트를 손수 만들게 하고, 그 노트에 읽은 책에 대해 독후감을 자유로이 쓰게 자극해 주면 좋다.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색도 칠하면서 노트를 메워가도록 하고, 한권의 독후감 노트가 끝나면 칭찬도 해주고, 상을 주는것도 좋다.

어린이들은 즐거운 독서속에서 무한히 성장하고, 자기표현력과 빠른 이해력을 가지게 된다. 물론 독서를 통해서 얻을수 있는 풍요함은 더욱더 크지만.

다음번 글에서는 독서를 통한 정서에 대해서 쓰겠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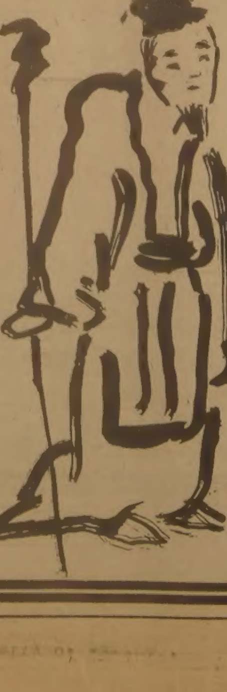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셰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개 국어가 능통한 한의사.
(중국어·일어·몽고어·소련어·한국어)

— 20년간 경력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
— 20년간 침술학 연구(하르빈에서)
— 중국 본토에서 직수입한 한약재 사용
— 중국의사 자격증 소유자로서 20 년간 하르빈대학 교수 역임

하르빈한약상사

643A BLOOR ST. W.(신용조합옆 2층)
(B)530—1868
(R)743—0752 서춘봉

인사 말씀

금번 강정숙여사가 주정부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를 획득,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에서 일하게 됨을 인사드리오며, 이 회사는 여러분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종합부동산회사로서 더욱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정숙 여사는 주택매매 전문이오니 주택매매에 대한 모든 문의를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 (416) 449-8644~5 B).
745-1915(R)
강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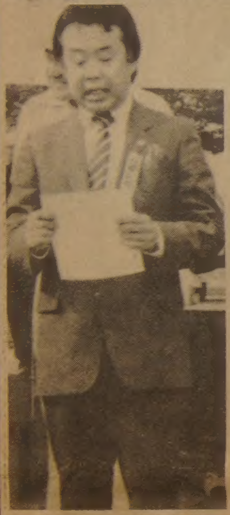
야화구보

어린이야구대회
7월3일 코로네이션·팍

◆영광의 애뉴얼·트로피가 연합교회팀에게 전달되고 있다. 왼쪽부터 윤방현 본사 자문위원, 연합팀의 피처 이래리, 김명규 대회장, 박재선 진행위원장, 연합팀 주장 정 도날드, 정세용 심판장.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인 침례교회의 김대니스군(7세).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큰 글로브를 꼈으나 얼굴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응원석의 학부형들.



◆축사하는 이병권 체육회장.

◆임효신선생 지도아래 야구선수 못지않게 열심히 응원을 한 6명의 연합교회 치어·리더스.

◆자랑스러운 손자와 흐뭇한 할아버지. 투수상을 탄 통일팀의 김애디군과 김문량 야구협회회장.

◆세종한글학교의 웬디 양과 갱(Gang)들이 아이스 바를 맛있게 빨고 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광고주를 찾습니다! 연락처 : 533-2361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정씨농장 채소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농장에서는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교포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의 주식인 배추와 무우를저렴한 가격에 특별봉사 하고자 합니다.

소매가격 ● 배추 16¢ (Lb당)
50Lb 1BOX에 $8.00
● 무우 20¢ (Lb당)
50Lb 1Bag에 $10.00

일시 : 1982년7월7일부터~
판매장소 : 시내 각 식품점

RRI Wainfleet Ont, L0S 1V0
1-899-1154
정씨농장 주인 백

감 사 말 씀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참가팀 관계자, 심판 제위및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단체·인사(아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대회를 거름삼아 내년에는 더욱 좋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당일 바쁘신데도 불구, 축사를 해주신 이병권체육회장및 시구해 주신 박영철 부총영사께도 고마운 뜻을 밝힙니다.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 : 정세용(위원장)·박재선·조용덕·박세영·박샌디·조동식.
❖찬조자 : 실업인협회, 김종조종합보험, 연합상사(사장 김현모) 이병권체육회장, 한국관(이기항·나옥녀), 최영식(신의상사), 강찬영변호사, 브랜돈스포츠사(대표 이건영), 연합교회, 사대부고동창회, 윤방현 본사 자문위원, 삼복식품, 한밭식품.

— 토론토 한국일보사 드림 —

당뇨병으로 끝없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 이약·저약으로 아무 효과 없어 무서운 합병증까지 걱정하면서 고심하고 계십니까?
* 당뇨병도 치료될 수 있읍니다.
* 희망을 드립니다.
* 연락하십시오.

한약부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한국일보

通貨인플레 對策추궁

"過剩투자·物價영향 없다 公債등 이율 物價와 連動"

답변

어제 經科委 6·28조치 副作用 해소책 따져

국회는 2일하오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經科委를 열고 6·28경제활성화대책과 그후속조치들에 관한 정부측보고를 들은뒤 경제활성화대책에따른 부작용의 해소, 中小기업, 서민家計보호등 보완책등을 추궁했다. 이날 高炯南(民正) 洪思德(民韓) 金鍾河의원 (국민) 등은▲6·28경제조치의 수립이 경제각료들의 합의에의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예상되는 稅收결함에대한 구체적인 대책▲통화인플레의 유발가능성에대한 대책▲환율인상및 통화팽창대책▲앞으로의 예산운용방향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洪의원은『6·28조치는 국민경제전부를 걸어놓은 도박이기때문에 국민적 합의위에서 이루어져야했다』고 주장했다.

洪의원은『6·28조치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內需부문등에 자금이 방출된다해도 물가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어려울것』이라고 전망하고 稅收결함의 구체적 대책으로 ▲방위비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과감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河의원은『재정수요충당을위해 韓銀차입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통화인플레의 대책을 따졌다.

金의원은『물가 안정과 국제수지 흑자는 재고품의 덤핑과 원자재의 가격하락으로 이뤄진것』이라고 전제하고『원자재등의 가격이 인상될경우의 대책이 서있느냐』고 따졌다.

金埈成부총리는 답변을 통해『6·28조치는 어느 특정인에 의해 지시를 받는 일은 없었으며 정부의 소신에의해 내려진조치』라고 말하고『그 조치는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바탕위에서 이뤄진것』이라고 밝혔다.

金부총리는『이 조치는 과거처럼 과잉투자를 조장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민경제회복에 중점을 둔것으로서 기업투자로 생산과 고용효과를 증대시켜 경제활성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내려진것』이라고 강조하고『기업인이 자기기업에 增資토록 유도하고 그런기업에대해 主去來은행이 자금공급의 혜택을 주는것이 이조치의 목적의하나』라고 덧붙였다.

金부총리는 또『이번 조치로 인해 과잉투자나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는 없을것』이라면서『國公債와 會社債이율을 물가 또는 公金利와 連動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中小기업지원에 관해『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中小기업에 가도록 할것』이라며『中小기업자금지원은 그 대상의 선택을 은행이 아닌 中小기업진흥공단이나 中小기업진흥…등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電氣料 밀가루값 引下

8일까지 30개 生必品값 日日점검

稅收부족 歲出억제로 보전…8월 追豫편성

정부는 6·28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보완조처로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공산품및 원자재 30개품목과 주요생필품 30개품목에 대해 가격및 시장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전력요금(중소기업대상소등력)과 밀가루등 정부관리가격중 인하가능성이있는 품목은 오는8일까지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

또 통화관리면에서는 추가공급되는 자금이 중소기업기계공업및 실수요자 주택거래등 생산에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되도록 月別 부문별 여신배정계획을 수립、운영키로 했다。특히 과도한 통화팽창에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기위해 총통화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운용하고 금융자율화시책의 일환으로 第一、서울信託、朝興銀등 3개 시중은행의 민영화 세부계획을 8월중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私債양성화대책은 재무부案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전문가와 협의를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私債양성화대책과 관련、소득세율을 전면조정、새로운 稅制改革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이 國會經科委에보고한 6·28경기활성화대책에따른 보완조처의 내용과 추진일정에따르면 모든 보완조치는①물가、금리、경기동향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안정기조를 견지하고 ②가수요와 인플레를 유발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여신관리를 신축성있게 운용

蘇, 10월초 잘츠부르크서 對美頂上회담 제의

【제네바1日UPI=聯合】소련은 美蘇정상회담을 오는10월초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개최할것을 막후 협상을 통해 제의했다고 한소식통이 전했다。

日、상품借款 응하기로

內資지원形式 韓日經協타결 실마리

【東京2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1일 外務·大藏·通産·經濟企劃廳등 관계국장들이 모여 韓日경제협력문제를 논의、商品차관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정부가 한국측에서 강력히요청하고 있는 상품차관의 공여에대해 종래의 거부원칙을 바꿔 일본측이 협력하는 사업의 內資分에 대해 자금을협력하는형식으로인정한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經協 문제타결에 실마리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에 공여할 총액을 40억달러로하고 엔차관15억달러、수출입은행차관 25억달러、평균금리 6%로한다는 최종안을 아직도 고수、한국이 새로제안한것으로 알려진 經協총액40억달러중 정부개발차관 23억달러、상품차관17억달러、평균금리 6%라는안에 현격한 차이가있어 5일열릴 韓日외상회담이 경제협력문제의 교섭에 성패를 가름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칼텍스石油社 고문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2일 상오 청와대에서 美칼텍스 石油회사고문인 제임즈·보스前韓美경제협의회 美측회장을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盧載源외무차관、美댈라스·리퍼블릭은행의 찰즈·파스토르회장이 배석했다。

對韓公約 준수다짐 李外務, 스토셀會談

【워싱턴1日=聯合】레이건美행정부는 1일 李範錫외무장관의 訪美가 양국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훌륭한 관계를 재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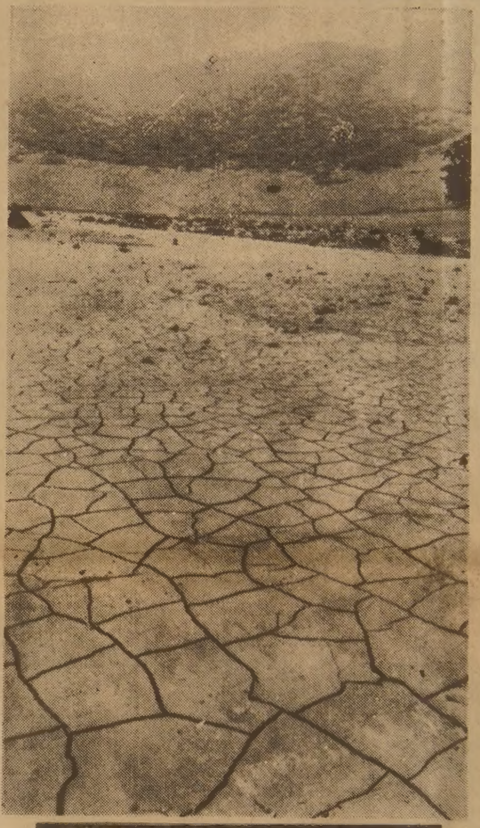
앨런·롬버그국무성대변인은 이날정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李장관과 헤이그국무장관 스토셀 국무차관과의 회담이『양국간의 훌륭한 관계를 반영、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內務委소집 검토

3黨총무、地下鐵사고 대책협의

與野는 3일상오 총무회담을갖고 서울中區 西小門洞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과 사후대책을따지기위한 국회內務委소집문제를 비롯한 국회상임위소집과 3黨대표회담소집및 韓英洙의원 문제등을 협의할예정이다。

林鍾基 民韓黨 총무는 2일『內務委를 비롯한 상임위소집과 3黨대표회담 개최문제등을 논의하기위해 3일상오중 총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고 밝히고『지하철붕괴사고를 다루기위한 內務委소집은 꼭성취하겠다』고 말했다。



가뭄 바닥드러난 白鹿潭

◇漢拏山의 白鹿潭이 계속된 가뭄으로 2일완전히바닥을드러냈다。해발 1천9백50m의 漢拏山정상에 9만여평의 규모로 자리잡은 白鹿潭은 건조기인11월에나 간혹 물이말라 붙을뿐 항상 맑은물을 간직해 등산객들에게 신비경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심한 가뭄으로 지난 6월25일께부터 바닥을 보이기시작, 2일엔 물이 모두 말라버려 물속에서 자라던 올챙이류들마저 떼죽음을 당했다。 【濟州=聯】

제12회 鳳凰大旗 高校野球

在日同胞 / 冲岩高校 / 慶南高校 / 京畿商高 / 江陵高校 / 普成高校 / 馬山商高 / 南大田高 / 慶北高校 / 光州商高 / 慶州高校 / 明知高校 / 大田高校 / 京畿高校 / 心石綜高 / 群山商高 / 大邱商高 / 서울高校 / 東萊高校 / 培明高校 / 光州一高 / 釜山商高 / 春川高校 / 培材高校 / 浦鐵工高 / 釜山工高 / 清州高校 / 德壽商高 / 北坪高校 / 木浦商高 / 大邱高校 / 仁川體高 / 世光高校 / 東大門商 / 城南高校 / 五山高校 / 興光高校 / 徽文高校 / 光州眞興 / 東山高校 / 原州高校 / 中央高校 / 仁川高校 / 馬山高校 / 公州高校 / 獎忠高校 / 慶南商高 / 永同商高 / 全州高校 / 釜山高校 / 善隣商高 / 濟物浦高 / 信一高校 / 天安北一

社告

전국54개팀 1·2회전 對陣확정

名門·강호의 白球 大祭典… 8월1일 플레이볼

史上최대규모、7개팀 첫선 在日同胞팀도 참가

오는 8월1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되는 제12회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한국일보·日刊스포츠·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문교부후원)의 1·2회전 대진이 확정되었읍니다。

鳳凰大旗대회에 출전하는 전국54개 고교팀 관계자들은 2일하오 한국일보 12층강당에서 대진 추첨 회의를 갖고 초반 1·2회전 대진을 확정했으며 3회전부터는 경기진행과함께 계속 추첨으로 다음대진이 결정됩니다。고교야구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지는 이번대회에는 지난해 초록鳳凰大旗를 차지한 慶北高를 비롯、전국의 명문 강호들이 한자리에 모여 18일까지 白球의 대제전을 펼치게됩니다。在日同胞팀도 지난해에이어 모국을 방문하며 京畿商·濟物浦高 北坪高 原州高 釜山工 東萊高 慶州高등도 이번대회서 첫선을 보이게됩니다。

한국일보社

駐韓 요르단大使에 무프티氏 임명

요르단정부는 80년3월에 이임한 아메르·알멜·카데르·사무트 駐韓대사(東京常駐)후임으로 現駐日대사인 주헤르·알·무프티대사를 駐韓대사로 임명했다고 외무부가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무프티대사에 대해 지난달 4일 아그레망을 부여한바 있다。

社会漫評

「비구름」 좀부탁함! 오버

地平線

사람됨됨은 역경이나 극한상황에 빠졌을때 그참됨을 알수있는 법이다。한국인은 이런면을 중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항공기 납치사건에서처음으로 한국인이 7명씩이나 대량 인질이 되었던 이번 이탈리아여객기 被拉事件에서 보여준 우리탑승자들의 博愛精神은 지금 세계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32시간의 숨막히는 인질극을 견디어낸 한국인승객들의 기지와 인내심、희생적 봉사정신은 놀랄만했다。술렁이는 승객들 틈에서 서로 한국인임을 확인하였다。소아과의사인 金舜謙교수는 석방기회까지 양보해가며、피를 토하고 괴로와하는 일본 京都大의 오노에히시오교수를 구해주었다。인질이된 처지에서 金교수는 응급지혈을 하면서 7시간동안이나 침착하게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한것이다。▼인질극이 끝나자 승무원및 이탈리아 승객들은 金교수를 에워싸고「이같이 훌륭한 의사가 또 어디 있겠느냐」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항공사측에서는 金교수연락처를 묻더라고 한다。이 얼마나 훈훈한 얘기인가。이사건 소식을 듣고 생각나는 것은 세계 최대의 海難사건이라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구조승객에 관한 얘기다。1912년 4월15일 氷山과부딪혀 승객 7백11명이 구조되고 1천5백17명이 사망했었다。▼부녀자를 우선 구조하던 보트에 일본인 승객이 남을 밀치고 탔느니 밀치지 않았느니하는 시비가 7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신문 잡지에 오르내리고있다。그당시 서양사람들은 일본사람의 비열함을 일제히 공격했고 일본신문은 사실이다、진상이 다르다、하며 엇갈린 논쟁을 벌였다。공교롭게도 이번에 한국인의사의 도움을 받은 승객이 일본인 교수인만큼 너무나 대조적인 면을 생각해보게 한다。▼또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柳光洙신부는 기내에 점차 불안감이 높아지자「여러분중에 죄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백하라」고 재치있는 즉석설교로 동요를 가라앉혔다고 한다。국제무대를 리드하는 한국인의 성장을 웅변해주고도 남는다。그뿐아니라 이탈리아 비행기서 생긴 사고인지라 이탈리아승객들이 민망했던지 약속이나 한듯 음식을 자진해서 날랐다는 얘기도 듣기에 흐뭇하다。위기에 처했을때 우리 韓國人이 보여야할 참된 모습을 이번 사건에서 훌륭히 시범한게 틀림없다 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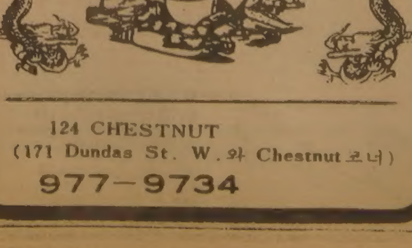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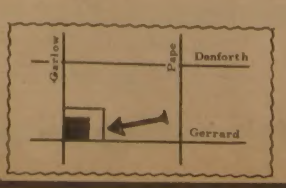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꽃(화초)도매상

◎저렴한 가격
◎철저한 신용

※전화는 오후1시 이후 요망.

곽덕렬
437 Carlaw Ave.
☎: 465-8167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中共, 核사용 假想훈련

日 共同통신보도 對蘇접경지 寧夏지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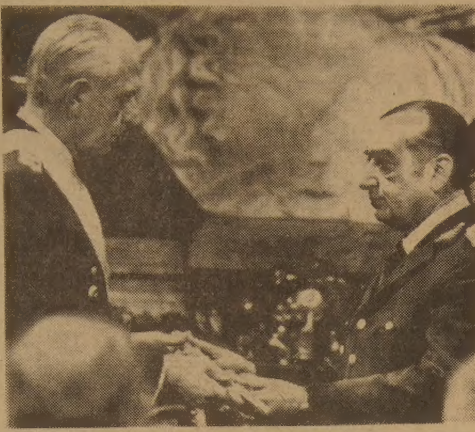
抗日戰때 功세운 우수部隊동원 / 머지않아 戰術核보유

【東京1日=聯合】중공은최근 중공군사상 처음으로 전술핵무기사용을 가상한기동훈련을실시함으로써서방군사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있다고、일본의 共同통신이 1일北京발로 보도했다.

이통신은 중공인민해방군소속 寧夏자치구주둔모부대가 주동이되어 이자치구 모처에서 핵전쟁이 발발했을경우 중공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것을 가상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고이 훈련에는 抗日戰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우수한 군부대들도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통신은 특히 중공의 한 지방신문이 지난달 28일자에서 기동연습광경을 찍은 사진을, 원자폭탄이 폭발 버섯모양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있다는 설명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서방군사소식통들은 중공이 지금 당장은 몰라도 가까운 장래에 전술핵을 보유할 능력을 갖추게 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번연습에 동원된 버섯모양의 구름을 일으킨 폭탄은 진짜 핵폭탄이 아닌 장차사용할 전술핵을 상상한모의폭탄일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공이 기동훈련을 실시한 寧夏자치구는 몽고남부에 위치한 對蘇방위선상의 요충으로 지난해가을에도 중공군이 對蘇방위전을 가상한 기동훈련을 실시한바있는 곳이다.



◇새 아르헨大統領 비뇨네就任 레오날도·비뇨네 아르헨티나대통령㊧이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부청사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육군참모총장 크리스티노·니콜라이드로부터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받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日AP합동=聯合】

太平洋 군작전強化 美空軍·海軍협조로

【워싱턴1日=聯合】美공군은 통신·美선박보호·소련선박탐지등 업무에 있어 美해군과의 협조관계를 긴밀화함으로써 태평양에서의 군사작전을 강화했다고 하와이 소재 美태평양지역 공군사령부의 아놀드·브래스웰 사령관이 말한것으로 1일 밝혀졌다.

브래스웰 중장은 호놀룰루·애드버타이저지와의 회견에서 極東에서의 소련의 위협은 비록 量的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質的으로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美공군은 해상작전지원에 보다 커다란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對臺灣 무기販賣 결국은 終熄될듯

美國務省 소식통

【워싱턴1日UPI=聯合】美국무성은 중공과의 지난 수개월간에 걸친 협상끝에 최근 對대만무기판매의 궁극적인 종식에관한 새로운방안을 중공측에 제의했다고 美의회소식통들이 1일 밝혔다.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종식결정은 관례대로 워싱턴과 北京에서 공동성명을 통해동시에 발표될 것같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양보의 일환으로 기존의 美·대만무기공동생산협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美·대만무기공동생산협정에 따라 대만에서는 현재 美製F5E機가 생산되고있다.

對蘇곡물라인 設置 블로크 美농무强調

【매디슨(위스콘신州)1日UPI=聯合】미국은 소련이 장차 소련·서구간 가스파이프라인을 이용, 對西歐압력을 가할것에 대응하기위해 미국과 소련간에 「곡물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할것이라고 존·블로크美농무장관이 30일 말했다.

블로크장관은 소련·서구간의 가스管이 소련에게 對西歐압력의 수단을 제공하게 될것이기때문에 美行政府는 이의 건설을 반대하고있는것이라고말하면서 美·蘇간「곡물파이프라인」의 설치를 요구했다.

블로크장관은 만약 소련이 對西歐공급용 가스管부설로 이득을 본다면 미국역시 소련의 對美의존도를 높이기위해 곡물파이프라인을 갖는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팔게릴라 完全소탕"

베긴宣言 西베이루트 民間人만 除外

【예루살렘·베이루트1日AP=聯合】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은 1일 이스라엘軍이 베이루트민간인들의 인명피해를 우려, 西베이루트로의진격을 꺼리고 있으나 다른 레바논지역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게릴라들은완전소탕할 것이라고선언했다.

베긴수상은 이날 미국 캐나다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민간들에게 베이루트를 잠시 떠나 있으라고 경고하자 PLO가 수백만명의 레바논人들을 西베이루트에 인질로 붙잡아 두고 있다면서 『이스라엘軍은 스스로의 병력손실과 민간인피해를 원치않기 때문에 西베이루트 진격을 주저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테러분자들은 제거돼야한다』고 말했다.

베긴수상의 이같은 위협은 미국과 레바논의 중재자들이 PLO게릴라들의 베이루트 소개계획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있는 가운데 나온것으로 이 협상이 조속히 끝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蘇 최신武器태반 西方기술로 生産

【東京2日=聯合】소련의 SS13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장치를 비롯, 공중조기경보기 IL86수송기등 최신예무기의 반이상은 미국및 서방측기술의 유출에의해 만들어진것이라는 美정부보고서의 내용이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의해 밝혀졌다.

닛게이는 이날 在日외교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는 美정부보고서를 인용 소련및東유럽의 정보수집활동으로 미국및 서방의 주요군사기술이 소련으로 유출돼 ICBM공중조기경보기등 최신예무기의 반이상을 만들게 했으며 일본의 對蘇浮上도크수출은 소련에 대형항공모함 건조기술을 습득케 해주는 결과가 됐다고 보고하고 특히 80년대에는 소련이 기술수집의중점을 전자계산기로부터 家電제품에 이르는 가정용품에 일본을 대상으로한 정보수집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이같은 美정부보고서는 美CIA가 작성한것으로 지난4월에 일부가 공표됐으나 내용전문은 이번에 처음밝혀진 것이라고 보도하고 보고서중에는 제2차세계대전직후부터의 소련및 東유럽의 정보기관을 중심으로한 기술수집 실태를 비롯, F15機및 B1폭격기 레이다장치 미사일기술등 약20건에 달하는 미국의 최신예무기의 극비정보가 소련에 전달된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고 말했다.

對中共 경계선없애 北傀、將星亡命계기

【東京2日=聯合】북괴는 군간부들의 대량망명사건을 계기로 5월말부터 중공과의경계선을 폐쇄한것은 물론 동서해안과 중공과의 경계선전역에 걸친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아리 홍콩地位

홍콩(香港)은 크게 나누어 3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阿片戰爭후에 맺어진「南京條約」(1842)으로 英國이 中國(淸)에서「割讓」받은 홍콩섬, 그 다음은 다시「北京條約」(1860)으로 英國所有가된 九龍반도 일부와 스톤카터섬, 세째는 1898년 中國에서 99년간의 기한을 붙여 英國이「租借」한 九龍반도北部의 광활한 新界地域。첫째나 둘째는 완전히 英國이 領有하는 땅으로 되어있고 세째번 땅만이 英國 直轄식민지인데 1997년 6월30일이후에는 中國側에 領有權이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新界地域에대해 中共側이 租借期限을 더 연장해주지 않을까하고 英國은 기대하기도 했으나 최근 鄧小平이 언급한것을 보면 租借기간만료후는 中共이 이지역에대한 主權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租借地域의 반환은 그렇다하고「割讓」된 홍콩섬이나 九龍地區에 대해서도 혹시 中共이「主權회복」을 내세우고 나서면 어쩌나하는것이 英國의 은근한 걱정이다. 왜냐하면 中共은 南京·北京條約같은 것을「不平等조약」이라고 지목하고있고 70년대초 유엔總會에서 黃華外相이『굴욕적인 條約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일이 있기때문이다.

15년뒤인 1997년에 가서 新界地域을 中共에 되돌려주고나면 英國直轄植民地로 계속 남는 홍콩섬이나 九龍지역이 독자적으로 유지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진다。현재의 홍콩중 10분의 9가 떨어져 나가고 섬덩어리한개와 11평방㎞밖에 되지않는 九龍의 일부 平地만이 남는데 이것으로는 存立이 힘든 것이다.

홍콩의 먹는것、마시는것、쓰는것은 新界地에서 生産되며 모자라는 것은 모두 中共서 사들여오고 있다。홍콩이 中共에무는 물값만도 81년에 2억8천만美弗에 달했다。홍콩—新界地—中共內陸은 共生共存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수없다.

최근에와서 홍콩·中共間의 紛爭은 더 두드러지는 추세이다。交易量은 한해에 70%씩 증가하고、홍콩은新界地域의大埔、元朗두곳에 대규모工業團地를 조성할계획하에 있다。中共도 이계획을 찬성하고 나섰는데 鄧小平은 홍콩投資家를 안심시키느라고『홍콩地位가 변한다해도 투자가의 이익은 보장될것』이라며 거들었다.

그러나 이말속에 담긴「홍콩地位」라는 것이 아무래도 장래의 홍콩을 不安케하고 있다。홍콩은 영화〈慕情〉의 원작자 한·수인의 말처럼『빌린 땅·빌린 時間』속에 있음을 부인할수 없기때문이다.

對韓政策 지속성 再확인

相互인식差·궁금증 해소 / 經協문제도 호의적 반응

李외무 訪美외교 成果

【워싱턴1日=李文熙특파원】李範錫외무장관은 1주일간의 訪美를마치고 2일 상오 韓日외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떠나 일본으로 향한다.

李장관은 그간 조지·부시 부통령을비롯, 국무성、국방성관계자는 물론 의회지도자들과 광범한 접촉을 가지며 양측현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李장관을 수행한 한 관계관도 이번 訪美가 특정현안의 타결보다도 한반도 정세전반과 미국의 對韓정책의지속성을 확인하고 韓美 두 나라가 상호간에 가지고 있던 인식의 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있었다고 말하고 이 점에서 이번 訪美는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自評했다.

먼저 이들은 국무장관의경질등 미국행정부의 변혁시기에 각계 지도자들을 만나 對韓정책에 지속성을 다짐받았다는데 큰 의의를 두는 것같다.

부시 부통령을 비롯、의회지도자들까지 이 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전했으며 모두 李장관의 訪美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對韓방위공약및 주한미군 계속 주둔등 레이건 대통령의 對韓정책이 확고부동한 것임을 국무성측과의 면담에서 재차다짐받았고 신임 슐츠 국무장관이 對韓인식면에서 헤이그 前任장관등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도 수확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경제협력문제에 관한 광범한 협의와 이해에대한 호의적반응을 얻어내는데도 의미를두고 있는것같다。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육성과 관련、해외군사판매차관(FMX)의증액、방위산업품목의 제3국 수출화대에서 모두 구체적인 미국의 방침을 확약받았다고 말하고있다.

이문제와 관련、칼루치국방차관은 한국방위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상황에서 미국방성은 그간 이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팀을 구성、검토해왔으며 한국측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작업이끝나 국무성과 최종협의단계에 있음을 밝혔었다。또한 락솔트、하트필드、글렌、솔라트의원등 의회지도자들도 對韓FMX증액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비쳤으며 대체로 의회측인사들이 호의적인 對韓자세를 갖고있음을 확인하기도했다.

잇따른 일련의 회담에서미국측 지도자들은 우리의 국내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李장관은 그때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측은 이같은 궁금했던 문제들을 李 장관의 訪美기회를 통해 직접들을수있었다는데 크게 만족해 했다고 관계관들은 전했다.

부시부통령은 李장관과 만난자리에서 최근 이루어진 3黨영수회담을 여론을 수렴하는 정치적분위기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헤이그前국무장관은 全대통령의 아프리카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한국이 앞으로 제3세계에서의 역할을 크게 늘려줄 것을 강조하는등 한국의 외교적역할을 기대하는미국의 희망을 전하기도했다.

바쁜 일정속에 끝난 李외무의 訪美는 이같이 양국의 전통적 우호와 공통의 인식을 와서 다시 다졌다는데 포괄적인 뜻이 있는 것 같다。양국은 늘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만나서 한 의견교환에 이번 訪美의 남다른 의미가 있는것같다고 수행한 관계관들도 말하고있다.

美와 입씨름飛火

西歐의 蘇가스管건설 지원

美國 새技術 유입 軍備보탬

工費 1천5백억弗、84년마무리 한해 輸入費 80억弗 지불

유럽 經濟불황 더는 못참어

우랄산맥 동쪽 우렌고이지방은 소련이 자랑한 천연가스의 寶庫。그곳에서 체코와 서독국경을 지나 스페인까지 거리는 장장 5천4백60㎞。서울과 釜山을 6번반쯤 왕복할만한 거리에 천연가스관을 건설하는 계획을놓고 엉뚱하게 미국과 서구동맹국간 입씨름이 요즘 한창이다.

이 가스管공사는 사실은 소련이 프랑스등 서구의선진기술을 빌어 건설하는것이므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여할 성질은 아니다.

지난해11월 소련과 가스공급협정을 체결한 西獨등 유럽국가들은 오는 83년까지 가스관을 건설해주는댓가로 소련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장기조달받으면 그만이다。이 공사는 또한 두자리수를 육박하는 실업자群을 상당수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수있다。西歐사람들이 소련내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이공사에 필요한 개스관이나 장비생산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총공사비가 1천5백억달러에 이르는 이 공사에 西歐가 대주기로한 장비값만도 2백억달러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삿속으로도 실속이 많은건 물론이다.

美 西歐간 마찰은 소련이 84년부터 제공하게될천연가스가 지니게될 전략적 함정을 미국이 미리 경고하는 뜻에서 對蘇 기술수출을 봉쇄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해온데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이미 소련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수출을 미국내회사들이 하지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레이건행정부는 지난주 한단계 더 소련의 목을 죄는 조치를 취했다.

즉 기술장비禁輸의 범위를 유럽에 퍼져있는 미국회사의 子會社 또는 미국의 라이센스를얻어 석유、천연가스 채굴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까지 확대한것이다.

西歐 동맹국이 일제히반대하고 나선 이런조치의밑바탕에는 西유럽이 천연가스를 소련에 과잉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려는 布石말고도 소련의 군비증강을 어떻게든 억제하려는미국의 장기 세계전략도 깔려있다.

현재 계획중인 가스관이 완성되면 소련은 오는84년부터 25년동안 매년80억달러의 현금수입이 보장 된다。레이건행정부는 이 돈이 소련의군사력증강에 이용될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西歐의 對蘇천연가스의존도가 현재의 9%에서 25%까지 오르는사태와 아울러 미국이 기를쓰고 우선 막고 보아야할 다급한 과제인것이다.

미국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西歐가 노르웨이나알제리등 北아프리카 국가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길을 택하라고 종용하는입장이다.

이문제에 레이건행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對處하고 있는가는 西歐동맹국의 처지를 너무 두둔해온 헤이그를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데서도 엿보인다。레이건 대통령은 헤이그가 소련외상 그로미코와 뉴욕에서만나군축과양국이 협력하는 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고있는때를 골라 對蘇 기술·장비 禁輸확대 조치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가장 반발이 센 나라는 영국이다。리버풀暴動을 체험할만큼 고용의 失業문제를 안은채 포클랜드전쟁을 치른 영국은 초조하기 짝이없다。스코틀랜드에 본부를 둔 존 브라운 엔지니어링社같은 경우 소련에 1억8천만달러분 터빈을 제조공급해주기로 되어있는 회사다。그런데 이 터빈에 꼭 있어야할 회전날개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社에서 공급해주지않아 계약이행을 못하고있는 실정。

금주초 이문제를놓고 자리를 함께한 歐共市(EC) 외상회의에서는 미국법을 우방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건 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또 일부는 이를 提訴할 의향까지 비쳤다.

레이건은 그런 사태까지도 계산에 넣은것 같다。미국에 母회사를 둔 다국적 회사내 문제가 법정으로넘어가는 경우 2년 3년을 끌게 마련이고 그렇게되면 소련의 가스관건설을 지연시킬수있다고 본는것이다.

서독이나 프랑스등 소련 폴란드로부터 차관回收에 부심하면서도 미국내시장에 대한 고려때문에 이렇다할 대응조치를 취하지못하고있다.

이웃 일본 역시 사할린근해 유전개발에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지 말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고있다.

한편 西歐국가들은 미국이 지난번 베르사유정상회담때 약속과는 달리 국내에서 고금리정책을고수、달러貨의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西歐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면서 레이건의 정치적 목표에 西歐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입을모은다。主從관계에서 레이건이 西歐를 보고있다는비난도나온다。【金炳武기자】

◇즐거운 나의집 미국 루이지애나州 케너에 사는 리처드·풀씨부부와 4명의 딸들이 이웃집 잔디에 세워진 대형텐트에 들어가있다. 풀씨가족은 전세집을 구하려했으나 자녀수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자 아예 텐트에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異口同聲. 【UPI】

伊機납치범 스리랑카서 환영 / 몸값 30만弗챙겨 가족과함께 歸國

이탈리아 알리탈리아 항공소속 보잉747 점보제트기를 방콕의돈무앙 공항으로납치, 한국인승객 7명을포함승무원등2백60명을붙들고인질극을벌였던 스리랑카태생 범인세팔라·에카나야케(33)는 사건발생 32시간만에 잔여인질 1백여명을 모두 석방한 뒤 美貨30만달러의 몸값을챙겨 가족과 함께 방콕을출발、1일밤 (현지시간) 故國수도인 콜롬보에 도착했다.

셔츠와 진 차림의 에카나야케가 부인및 아들과 함께 콜롬보의 카투나야케 국제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약5백명의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자야웨와(승리)』를 외쳐 진풍경을 보였다.

애카나야케 일가족은 타이 스리랑카 이탈리아 3국외교관들의 주선으로 1일하오11시8분(한국시간) 다른 승객 약2백50명이 탑승한 에어·랑카 제트여객기 편으로 방콕을 떠났었다.

스리랑카경찰은 에카나야케에 대한 약90분간의 심문및 입국절차를 마친뒤 그를 지프에 태워 인터컨티넨탈호텔로 직행했으며 잠시후 범인은 호텔에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카나야케의 여권을 압수했으나 그에대한 체포계획은 스리랑카정부가 타이당국의 조치를 존중키로결정한후 최종순간에가서 백지화됐다.

한편 태국경찰은 납치범이 여객기의 비행루트를 이탈시키지 않게했으므로 「비행기 납치행위」로는 볼수 없었다고 뒤늦게 밝히고 납치범은 빈깡통3개를 조끼에 매달고 폭탄을 가장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들은 태국경찰이 납치범을 그대로 놓아준데 대해서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콜롬보=AP】

海外토픽

議員·사환간 同性愛 추문확대 / FBI서조사 巨物級인사관련

일부 미의원들과 10대의 의사당근무사환들간의 동성애혐의는 1일 하원의 중진의원1명과 몇몇 거물인사까지 연루된것으로전해지면서 커다란 스캔들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사환들의 고발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사환들에게, 동성애행위를 유혹했으며 약물을 제공했다는혐의를 조사중에 있다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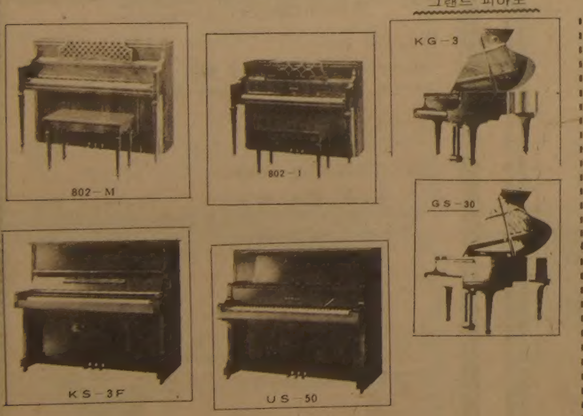
美아칸소·가세트지는 이번 추문에 상원의원 1명과 9~10명의 하원의원、그리고 사환10명이 관련됐다고보도했으며 뉴욕·데일리·뉴스지도 아칸소주출신의원이 소개한 사환주임1명과 뉴욕주출신의원이 소개한 사환1명이 동성애및 마약거래에 관련된 행위때문에 금년들어 해고당한 일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UPI】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그랜드 피아노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기간 : 7월7일～8월25일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홀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지하철工事…도처에「崩壞위험」

——장마철 앞두고 일제點檢 초비상

모든工區 水防대책에 분주

揚水機비치…現場감독 철저

무악재공사장붕괴에이어 일어난 西小門지하철공사장 사고는 서울시내의 많은 지하철공구가 붕괴위험을 안고있는것이 입증됐고 장마철에는 그위험도가 더욱 높아질것으로 예상돼 서울시와 시공업자들이 초비상, 점검에 들어갔다. 75년이래의 가뭄으로 아직까지 지하철공사장에서의 수해는없었지만 곧 장마가 닥치고 도처에파헤쳐진 지하철공사장에 빗물이들면 토사·암반의 붕괴등 사고요인이 높아지는것은 자명한일. 서울시는이제西小門 사고를 계기로「공기내완공」보다「안전시공」을 더중요시하는 대원칙을세우고 기존의 수방대책을 총점검, 보완하는한편 시공회사를 상대로 철저한 현장감독을 실시해야 할것같다. 또 서울보다 지질이 더연약하고 바다에가까운 부산지하철의 경우엔 이같은 안전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4호선 漢江路구간등 17곳 특히 危險

서울의 장마철위험공구는 4호선 漢江路구간등 17개공구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저지대이거나 하수·노면수(路面水)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폭우엔 속수무책.

龍山구간 1천2백10m인 4호선 4 1 8공구(共榮토건)의경우 漢江제방이 쌓여지기 전 물이 드나들던 곳이어서 점토성(粘土性)이 강한곳. 이때문에 지반이 잘 다져지지않고 파일사이로 물이새어나와 방수처리가 곤란하다.

또 南山을넘어온 수계(水系)의상수도망과하수도관이 밀집된 2호선의 6~2공구(新堂洞·三星), 6~3공구(乙支路6가·三益), 6~5공구(乙支路5가·三湖)등 지도 수해위험이 크다.

전에하천·계곡이었거나 하수맥이지나는 곳으로 지하수가쉴새없이 뿜어져나와 지반약화·토류(土留)·지하공사장안에 물이괴우려가있다.

또 폭우때 노면수가 정체될 우려가 있는곳은 4호선 4 2 2공구(舍堂洞구간 1천7백78m·京南기업)등 4개소.

서울시는 지난5월 전공구에대해 수방대책을 세울것을 지시, 갱내에 집수정시설을 갖추고 공구마다 4~6인치짜리 양수기 2대이상을 동원, 물을 퍼내는 한편 가마니·샌드백등을 준비하고있는데 정밀한 계산에의한 수방대책에는 미흡한것이 사실.

갱내침수때 양수기로 물을 뽑아 하수도에 연결, 뽑아내는방법도시간당50㎜이상의폭우에는 실효가 없다.

또 노면수가 들어가지않도록 복공판끝에 높이 30㎝이상의 庶水턱을 설치하는게원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않고있다.

日本의 경우 JSP(대형특수파일) 공법이나 LW(庶水) 공법등을 도입, 전구간에 설치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1m에 50만원이 더들기때문에 JSP파일대신 지하를 더파내다음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시멘트방수공사를 하는 庶水공법을 쓰고있다.

5·6월의 특별점검에서도 지하수, 노면수처리부문은 전체지적건수 7백22건의 6%인 44건이 지적됐으며 2호선보다 3·4호선이 더위험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峴底洞사고이후 각시공업체의 안전시공에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이지만 점검한 안전재해요인을 제거해야할 시공회사와 인부들은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않고있어 문제인것으로지적된다.

공구마다 2~3명씩 배치돼있는 서울시의 감독관이 40개항에 이르는 점검사항을 체크, 보강을 지시하더라도 현장소장이 이를 소홀히하거나 다음날 점검해보면 고쳐지지 않는일이 많다는것.

이 일제발주로 인해 인력이많이 필요하므로「단골인부」의 확보가어려운데다 업체마다 일당이 6천원~9천원까지 차이가 있는것도 안전을 저해하는 遺因이되고있다.

실제로 야간작업을 할경우 주간노임의 2·5배를 더주게 돼있으나 업체에따라서는 2만4천원을 줘야할 착암공은 인부를써 1만4천원을주는식으로 공비를 아끼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주입관독과 조감독을 별도로 주1회모아 공정관리, 안전대책등을 점검하고있으나 감독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점검리스트를 종합하는제도가 마련돼있지않아「사소한」문제는사장되고있다.【任龍淳기자】

◇뽑아낸 地下水 어디로… 지하철 공구마다 장마대책을 마련, 빗물받이를보수·신설하는등 조치를취하고있으나「점검」과는 거리가있다. 양수기로 지하수를 뽑아내는것도 긴요하지만 노변의물이 스며들지않게 복공판에 틈새가없도록 해야한다는것이다.

“공사 中斷하더라도 安全시설 갖추도록”

金서울市長 지하철施工26社에 당부

서울시는 2일 지하철건설 26개회사대표들을 다시소집, 안전대책을 시달하고 전공구에 세번째점검을 벌이기로했다.

이자리에서 金聖培시장은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안전시설을 완벽히갖추도록 지시,「공기엄수」원칙에 신축성을보였는데 안전시설 공사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보전해주기로했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때에는 현장소장이 즉시 교통을 차단하는등 현장처리권한을 주어 사고재발을 막게했다.

이와함께 종전의 현장소장 과별로 각회사에서 안전점검을 전담할 기술요원을배치, 장마철에 대비해줄것을 당부했다.

지하철工事붕괴사고 要因은

H파일 완전히 박히지않은탓

現場관계 5명立件

서울中區 西小門 지하철2호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원인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사고가 西小門쪽 지벽에 박힌 2개의 H파일이 완전히 박히지 않은채 허공에 떠있어 토압을 이기지못해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에 의하면 시공자인 極東건설측은 지난달3일 西小門쪽 벽에 박힌 4, 5번 H파일밑에 현장사무소 직원용 화장실 정화조를 설치하기위해 집수정(集水井)을 팠는데 이때 파일 밑부분에 70㎝가량의 공간이 생기자 재크로괸채 공사를 강행, 이파일이 미끄러지면서 토압을 이기지못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極東건설사장 金明根씨(49), 토목부장 南章潤씨(46), 현장소장 安世濬씨(44), 공사과장 文宗彦씨, 서울시하철건설본부 현장감독관 金榮達씨(45)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봉괴때 추락車主人 22억不渡낸 手配者

西小門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때 승용차와함께 25m아래로 떨어져 중상을입은 金龍泰씨(38·동일화학사장)가 상업은행 龍山지점과 元曉洞지점등 두은행에서 지난4월과 6월두차례에걸쳐 모두 22억원의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수배를 받아왔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金씨를 부정수표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光州은행 銃器강도 主犯 징역15년宣告

【光州】光州지법형사합의2부(재판장尹在黙부장판사)는 2일상오 光州은행林洞지점에 사제총기강도사건의 주범 朴종채피고인(22)에게 총포화약류 단속법위반 특수강도죄등을 적용, 징역15년을 선고하고 朴피고인의 동생朴모군(16)은 소년부로 송치했다.【聯】

高麗遺物 3백여點 발굴

北韓 熙川서 磁器·青銅제품등

【서울=聯】北傀는 최근 慈江道 熙川市 西門洞지역에서 고려자기를 비롯, 놋제품·철제품·질그릇등 3백여점에 달하는 고려시대 유물들을 발굴했다고 지난달13日字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江界역사박물관 요원들에 의해 발굴된 이 유물들은 자기류 2백43점(외사기 1백8점, 푸른사기 1백35점), 질그릇류 3점, 청동기류 69점, 철기류 10점, 나무장식류 6점등으로서 자기류는 커다란 독안에 차곡차곡 쌓여있었으며 그밖의 유물들은 독주변에 산재해있었다고 말하고 이가운데 청동유물로는 거울·대야·놋합·놋국자·놋수저등 일상생활용구들이며 철제유물은 박이말등자등 마구류들과 자귀·집게등 공구류들이었다고 전했다.

5行뉴스

◆宜寧사건 어제 2차公判

【晋州】경남宜寧郡宮柳面경찰관총기난동사건과 관련,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된 崔在潤(57·전 宜寧경찰 서장) 許昌淳(44·전宮柳지서장) 金鎭宇(35·전宮柳지서차석) 피고인등 3명에대한 2차공판이 2일하오2시 부산지법晋州지원1호법정에서 晋州지원형사단독 金永己판사심리로 열렸다.【聯】

◆遭難어부27명돌아와

【東草】지난달 25일 鬱陵島동남쪽 57마일해상에서 기관실화재로 조난, 침몰된 東草수협소속 제7협동호(55·84톤·선장 이종낙·31) 어부27명이 1백42시간동안 표류하던끝에 鬱陵島西面 통구미앞 2마일해상에서 울릉경찰서소속 경북3호경비청에 의해 구조됐다.【聯】

保險약품 센터設置

木浦市藥,「2종醫保」시행에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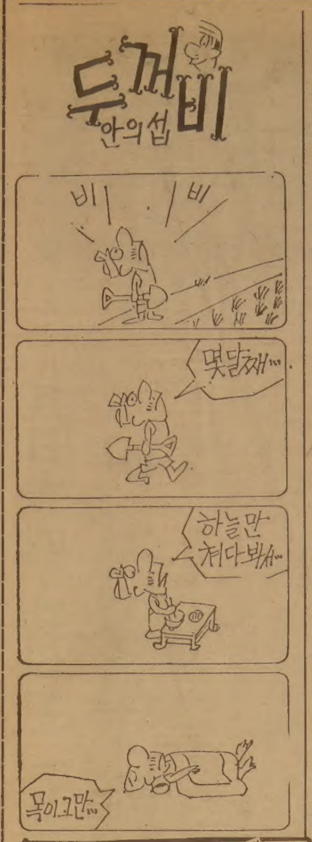
【木浦=鄭樂鎬기자】2종의료보험이 실시되는 木浦시의료보험조합이 1일 상오 조흥은행 木浦지점2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발족했다.

의약분업과동시에 업무를 개시한 木浦시의료보험조합은 2종의료보험에 대한 홍보,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들의 준비, 예상되는 병원의환자집중 현상과 병원의 수용시설부족등의 문제점을 안고있어 앞길이 순탄할 것 같지않다.

앞으로 6개월간 임의분업 형태로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경우 木浦시내 84개약국이 전부 요양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제대로 실시되려면 시간이 걸리며 영세약국은 경영의 위협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 현지 전망이다.

木浦시 약사회분석에 의하면 3천3백여종에 달하는보험약품을 비치하려면 약국당 7백~8백만원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한데다 투자를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돼 있지않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분석을근거로 84개회원약국을 7개지부로 나누어 각지구의 중심약국이 희귀약품과 보험약품의 공급센터 구실을 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司法書士사무원 2억詐取

자기집 19차례 겹치기 담보

億臺도박관여…들통나자 潛跡

【光州】光州지검은 2일 사채업자·친지·은행등으로부터 2년6개월동안 2억7천여만원을 사취하고 행방을감춘 光州市東區 山水洞 張모사법서사사무원 兪仁炫씨(39·光州市東區 山水洞537의25)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 협의로 전국에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兪씨는 지난80년1월18일 자기집인 山水洞537의25 싯가 4천여만원짜리 2층양옥을 李모씨(45·光州市東區錦南路4街)에게근저당잡히고2천만원을빌어쓰면서李씨의인감도장을근저당해제서류에 몰래 찍어 됐다가 3개월뒤인 80년4월14일 이를 법원에제출, 가등기설정권을 말소시켰다는것.

兪씨는 또다시 이날자로 安모씨(40·여·光州市東區壯洞)에게 집을저당잡히고 2천5백만원을 빌어쓴뒤 같은수법으로 며칠후 安씨몰래 이를말소시키고 또다른 사람에게 같은수법을 이용, 지난 80년1월부터 지난4월19일까지 모두19차례에걸쳐 1억2천6백만원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兪씨는 친척 兪모씨(50)가 부동산이전수속을 해달라고맡긴 등기서류를 같은수법으로 모사채업자에게 근저당잡힌후 1천만원을 몰래빼내썼으며 시내 모신협과모제약회사가맡긴 공탁금 1천2백8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받고있다.

이밖에 兪씨는 자신이 가입한 모친목단체회원 학교동창 종친회원 이웃주민 부인친구등 30여명으로부터 1억3천2백만원을 빌어쓰는등 모두 2억7천2백만원을 사취했다.

兪씨는 집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지난달말 우연히 兪씨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가등기권리가 이미 말소돼있음을 확인한 사실을 알아채고 잠적했다.

한편 光州지법은 지난달23일 兪씨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 협의로 光州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등기관리업무에대한 감독소홀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등기과 간부및 직원3명을 의원면직시키고 光州지법관내의 전사법서사에대해 특별감사를 펴고있다.

兪씨는 지난78년부터 달아나기 직전까지 억대도박판에 끼어들어 거액의빚을 진것으로 알려졌는데 兪씨가 검거될 경우 이도박판의 규모및 관련자들도 밝혀질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趙治勳 4局서 勝利

日本因坊방어 小林에 2勝2敗

【東京=宋孝彬특파원】히로시마현 누마구마에서열린 조치훈本因坊과 도전자 고바야시(小林光一)9단과의 37기 本因坊전 7번승부 제4국은 趙本因坊이 1일 하오9시50분 2 6 7수만에 11집반을 이겼다.

이로써 趙本因坊은 2승2패로 남은 3판중 2번을 더이겨야 본인방위를 방어하게된다. 백을 가지고 둔 趙本因坊의 남은시간은 1분, 고바야시는 4분을 남겼다.

제5국은 니이가따현 나가오까(長岡)시에서 7월8일과 9일에 열린다.

“電子오락실 許可내준다”

區廳직원 賂物받아

【釜山】부산西部경찰서는 2일 전자오락실 업자로부터 2백여만원의 뇌물을받은 부산시 서구청위생과장 백남옥씨(44)를 뇌물수수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진구청 세외수입 계장김선동씨(42·전서구청 환경위생계장)를 뇌물수수 혐의로, 업자 김동국씨(40·부산西區西大新洞2가64)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1월11일께 기준평수부족으로 허가취소(81년 2월13일)된 업자 김씨의 경남전자오락실의 무허가 영업을 묵인해주고 신규허가를 내준다며 현금 2백만원과 30만원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김계장도 현금5만원과 12만원상당의 선물을 받은혐의다.【聯】

被拉 한국인7명 無事귀국

피납된 이탈리아 알리탈리아항공기에서 32시간만에 풀려난 7명의 한국인이 2일하오5시 대한항공 6 3 6편으로 金浦에 무사히도착, 귀국했다.

한국인들은 지난달 30일하오1차로 인질들중 여자와노약자를 풀어줄때 金光文씨(50·漢大건축과교수) 李準範씨(51·高大교수·고대병원 무관리처장) 辛相根씨(43·선원·부산 釜山鎭區楊亭洞49의24) 李正姬양(24·이탈리아유학생·서울 東大門區面牧洞43의18)등 4명이 풀려났고 2차로 1일상오 범인이 요구한 가족과 30만불의 돈을 인계받은후 풀려난 金舜謙씨(50·高大의대교수) 金鎔씨(31·시청관광과직원) 柳光洙씨(34·신부)등 7명인데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32시간의 납치극속에서도 전혀 불안을 느끼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2차로 풀려난 金교수에의하면 승객들은 비행기가 납치된것은 방콕공항에 착륙한뒤에야 알수있었다고 말했다.

「檢察의 산歷史」

34년만에 停年퇴직한 金德模씨

“요즘 檢事들 옛보다 패기가 없어…”

몇차례에 걸친 파격 세대교체로 한껏 젊어진 검찰에서 탈락하지않고「최장검찰인」이라는 영예를 안은채 서울지검 증거물과 金德模과장(61·사진)이 정년퇴임했다.

검찰사의 산증인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산역사였던 그는 34년간을 검찰과 희비를 같이했다. 그의 이같은 외곬인생은 吳鐸根전법무장관이 갖고있던 최장 검찰근무기록을 경신한것으로「끝까지 깨끗 했기에」가능했던 삶의 마무리였다.

그가 검찰과 인연을 맺은것은 48년6월. 검찰일반직의 최단 말단직인 서기보로 살벌한 검찰에 몸을담았다.

이후 34년동안 서기관까지 승진하는사이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았고 각기 검찰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라성같은 인물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李鍾元전법무부장관과는 5·16후 현검의 부장검사때부터 임회로 같이 일하기시작, 서울지검으로 돌아올때까지 4년간 동고동락했다. 법무차관을 지낸 鄭泰均대법원판사도 서울지검 고검 대검에서몇년씩 일을 도왔다.

오랜 검찰생활에서도 그가 제일 보람을 느끼고 일에 몰두했던 때는 대검수사국(현중앙수사부)수사무관으로일할 68년이후 5년간. 釜山시장 金大萬씨사건, 서울 연조제조청장사건, 도로공사 사건등 굵직한 사건수사의 핵심멤버였다.

67년 東伯林간첩사건때는 春川지검에서 근무중 서울지검수사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받고 급거상경하는 등 그는 촉망받는 유능한 수사관이었다.

77년 서기관승진후엔 서울고검소송사무과장, 서울지검증거물과장을 지내며 주로 행정을 맡아왔지만 큰사건이 터지면 수사베테랑답게 좀이 쑤셔 견딜수 없었다고.

검찰에서는 매서운 수사관이지만 집에서는 자신이 중학1년때 홀로된 87세의 노모를 극진히 모셔온 소문난 효자.

4남매중 위로 셋을 결혼시키고 퇴직과함께 남은것이라곤 恩平區鷹岩洞 냉정약수터 산꼭대기의 16평짜리 기와집1채가 전부다. 이집도 얼마전까지 弘濟洞개천가의 무허가주택에서 살다 겨우 구했던 말년의 안식처다.

평생 집보다 더오래 머물렀던 검찰청사를 나서는 그의 과묵한 입은 한꺼번에 할말이 많아진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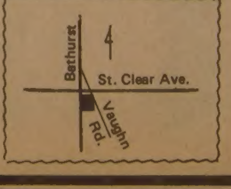
『검사들이 옛보다 패기가 없어진것같아요. 부당한 압력을 뿌리치고 안되면 옷도벗었는데…』증인의 마지막 증언에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걱정」이 서려있다.【崔奎植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한국관
연중무휴
○ 회의실 마련
○ 각종파티 환영
○ 저렴한 음식가격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나 옥 녀 ☎ : 531－0277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식당
Rose Garden Restaurant
◎8월3일부터 FULLY술 판매허가 나왔음.
각종 중국요리 전문
각종 파티 주문 배달
*회의실 완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목 11 : 00 AM— 1 : 00 PM
금~토 11 : 00 AM— 2 : 00 AM
일요일 4 : 00 PM—10 : 00 PM
538 ST. CLEAR AVE. WEST
TORONTO, ONT.
656－0456 654－6609 유창균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첫판 群商·邱商 빅카드

鳳凰大旗 고교야구 54개팀 1·2회전 추첨결과

釜山(대통령盃 우승팀)은 打力의 全州와
冲岩·在日、慶北·光商격돌도
京畿商·慶州·東萊·釜山工·北坪·原州 濟物浦 첫 출전…五山高는 6년만에

제12회 봉황대기 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의 빅카드는 올해 전국선수권(청룡기) 우승팀 群山商과 전통의 명문 강호 大邱商의 한판승부。54개팀 관계자(재일동포제외)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하오 2시 한국일보 12층 강당서 열린 대진추첨 회의는 시종 긴장이 감돌았고 대진결과가 밝혀지자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추첨은 서울지역17개팀을 필두로하여 경기·인천·강원·경남북·부산·전남북순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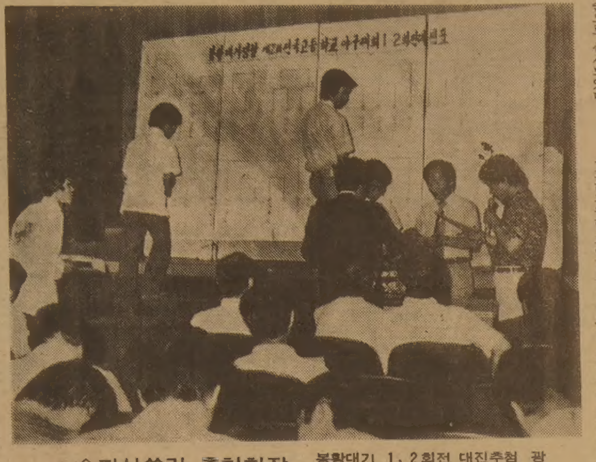
봉황대기의 특징은 매회전 대진추첨。그러나 동일 지역팀끼리의 1、2회전 격돌을 피하기위해 지역별로 나누어 추첨을 실시했다。

또한 대통령배 우승팀 釜山高는 막강타력의 全州高와 1회전서 맞서게되었으며 冲岩高-在日同胞、慶北高-光州商、天安北一高-信一高、仁川高-馬山高、培材高-浦鐵工高의 1회전대결도 관심을 모으는 게임。

이번대회에는 京畿商·慶州高·東萊高·釜山工·北坪高·原州高·濟物浦高등이 처음출전하며 五山高는 75·76년에이어 6년만에 다시 모습을 보이게됐다。

대진추첨에 앞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는 대회운영및 시상규정을 논의, 3회전까지는 점수차 콜드게임제(5、6회 10점·7、8회 7점)를 적용키로 했다。연장전은 12회까지 치르고 그때까지 승부가 나지않으면 다음날 첫경기 1시간전에 속개키로 했다。

시상규정 가운데 타격상은 8강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미기·최다 타점、최다 도루상은 회전에 관계없이 적용키로 합의 종전과 달라졌다。1、2회전 경기일정및 시간은 추후 결정된다。



◇관심쏠린 추첨현장　봉황대기 1, 2회전 대진추첨 광경。 群山商一大邱商대결등 1회전부터 강팀들이 격돌, 승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柳喜馨、체육부就業

70년대 농구대표선수로 활약했던 柳喜馨씨(34)가 2일 체육부체육진흥국 사회체육과 행정주사보로 취업했다。 柳씨의 취업은 각종 국가대표선수들의 은퇴후 보장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것。

올림픽組織委 일행 IOC협의차 出國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金鎔植위원장은 朴世英사업부장등 관계자 6명과 함께 88년 서울올림픽대회 TV중계권 판매등을 IOC와 예비절충을 하기위해 3일하오 스위스 로잔으로 떠난다。

金위원장일행은 귀국길에 뉴욕에 들러 ABC NBC CBS등 미국 3대TV방송회사를 시찰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도방문, 84년 LA올림픽대회 준비상황과 수익사업의 추진현황등을 알아본뒤 15일 귀국할예정이다。

새디스크

■맨해턴·트랜스퍼의 히트곡모음＝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로 팬들을 사로잡는 4인조그룹 맨해턴의 히트곡들을 한데 모았다。75년에 히트했던 「오페레터」를 비롯해 「보디 앤드 솔」 「캔디」등 12곡수록。【오아시스】

■킹·크림슨의 「디시플린」＝다른 그룹이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연주로 인기를 얻고있는 킹·크림슨의 새앨범。「무질서」 「훈련」 「의미없는 대화」등 6곡을 담았다。【成音】

■유시·비욜링 카네기홀 독창회앨범＝55년9월 카네기홀에서 열린 테너 비욜링의 연주회 실황음반。J·슈트라우스의 「황혼의 꿈」、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중 「나쁜 빛깔」、비제의 카르멘중 「꽃노래」등 가곡의 고전16곡수록。【地球】

金喆鎬、6대4 우세

내일저녁 5次방어전

挑戰者 발데스 만만찮아
서로 "KO勝" 장담도

프로복싱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21)는 4일저녁 大田 충무체육관서 멕시코의 왼손잡이 라울·발데스(28·동급WBC1위)를 맞아 타이틀 5차 방어전을 벌인다。

이번 방어전서 이기면 金이 지금까지 국내선수로 최다 타이틀 방어기록(5防)을 세웠던 朴贊希(WBC플라이급)와 타이틀을 이루게된다。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국내관계자들은 홈링의 金이 6-4정도로 유리하다는 견해를 보이고있으나 당사자인 金喆鎬는 신중한 태도。

『WBC에서 발데스에게 지명도전권을 주었을 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물론 타이틀을 방어할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링에 오르지만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이번 대전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 왔으므로 KO승도 기대합니다』

金은 금년2월 4차방어전서 日本의 이시이를 8회KO로 물리친후 5차방어전일정이 5차례나 연기되었고 도전상대가 前챔피언 라파엘·오로노에서 발데스로 바뀌는등 진통을 겪었으나

◇양선수 비교

金喆鎬		발데스
21세	연 령	28세
168cm	신 장	164cm
4년	프로경력	9년
파이터	스타일	복서
19승(9KO) 1무1패	전 적	28승(7KO) 4무9패

◇金喆鎬타이틀전적

때	장 소	상대선수	전 적
81년 1월25일	베네수엘라	오로노(베네수엘라)	9회KO(도전)
4·2	서울	와따나베(일본)	판정(1防)
7·29	부산	젠슨(미국)	13회KO(2防)
11·18	〃	마루야마(일본)	9회TKO(3防)
82년 3·10	대구	이시이(일본)	8회KO(4防)
7·4	대전	발데스(멕시코)	?

◇동급1위 멕시코의 왼손잡이도전자 라울·발데스。

◇프로복싱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 한국의 金喆鎬。

金의 이번방어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한국 프로복싱은 금년들어 가네히라 약물파문、泰國가짜선수입국사건등으로 미증유의 진통을 겪어왔는데 金이 통쾌한 승리를 거둔다면 再起의 돌파구가 열릴지 모른다。

체력면에서는 金이 우세하다。金은 키가 1m68、발데스는 1m64이며 나이에서도 金은 발데스보다 7살아래。

그러나 발데스의 전적을 놓고 혼선이 일고있다。대회주최측의 발표로는 28승(7KO) 4무9패이나 발데스 자신은 39승(20KO) 4무4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70년부터 3년간의 아마 전적이 80승(30KO·RSC) 1패라는것。

발데스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훅、어퍼컷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웃복서로 알려져 있으며 수비테크닉이 좋아 위기에 몰리면 교묘한 클린칭으로 벗어난다는것。국내관계자들은 발데스의 몸놀림이 일품이었다고 밝혔다。

발데스는 이번 도전을위해 멕시코서 1백라운드、한국서 25라운드의 스파링을 했다。

金은 새로 트레이너로 맡은 金俊鎬사범의 지도아래 힘과 技를 꾸준히 연마해왔다。

4년전 결혼, 두딸의 아버지인 발데스는 『10회 KO를 노리고있다』고 말했는데 발데스를 데리고 온 쿠요·에르난데스 매니저는 과거 사모라、사라테등을 세계챔피언으로 만들어낸 만만치않은 인물。

金은 81년1월 세계챔피언이 된후 본격적인 프로선수로 성장해가고있는 믿음직한 복서。윌리·젠슨(미국)과의 2차방어전서 13회KO승을 기록한이래 3、4차 방어전을 모두 KO로 장식하여 승부근성과 함께 파괴력도 갖추고있는 선수로 각광을 받고있다。세계챔피언이 된후 몸의 움직임이 한층 기민해졌고 맷집도 있으나 공격할때 가드가 벌어져 잔매를 많이 허용하는 것이 큰 흠。이번 大田경기서 어떤 스타일의 경기를 펼칠지 주목된다。

한편 金喆鎬-발데스 메인게임에 앞서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주니어 미들급챔피언 白仁鐵(20)이 멕시코 동급1위 안토니오·레이바를 맞아 10회전을 벌인다。이경기서 白이 KO승을 거두면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20연속 KO승의 대기록을 세우게된다。【金仁圭기자】

12體級 오늘爭覇

한국8 泰6 印4 日3명 進出

亞洲 아마복싱

제10회 아시아 아마복싱선수권대회는 3일하오 잠실체육관서 12개체급의 결승전을 갖고 폐막된다。

결승전에 가장 많은선수를 내보내는나라는 한국으로 모두 8개체급에서 금메달을노리게 됐으며、복싱강국 泰國이 6개체급에서 결승진출자를내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고있다。印度는 4체급에 결승진출자를 냈으며 파키스탄과 日本이 각각 3명씩을 결승전에 내보낸다。

이번대회 종합순위는 금메달수로 결정하지 않고、국제연맹의 룰에따라 금메달 3점·은메달2점·동메달1점으로 합산、결정한다。동점일 경우는 금메달 획득수에따른다。

◇결승진출자

라이트플라이	許永模(한국)	세가와(日本)
플라이	아말다스(인도)	클린찬(태국)
밴텀	퐁스리(태국)	무크타르(파키스탄)
페더	朴基哲(한국)	히구찌(日本)
라이트	사와디웡(태국)	프라단(인도)
L웰터	金東吉(한국)	옹포른마하르(태국)
웰터	鄭鎔範(한국)	마차이아(인도)
L미들	金義振(한국)	시라콘(태국)
미들	李南義(한국)	요꼬야마(日本)
L헤비	인카르케(태국)	이프라즈(파키스탄)
헤비	蘇培元(한국)	싱(인도)
슈퍼헤비	金鉉乎(한국)	다르(인도)

8백여選手 참가

전국水泳 開幕 亞洲대회對備

제37회 전국수영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다。

올들어 처음열리는 이대회에는 국가대표를 포함、8백여명의 선수들이 참가、11월의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수영의 기록을 점검하게된다。

특히 이번대회부터는 최근 日本에서 도입한 이동식電子계시기를 사용、기록 시비가 없어지게 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월드컵축구

벨기에、蘇에져 탈락

墺도 北아일랜드와 비겨 「歸國채비」

蘇 新參 오가네시안、決勝골…北아일랜드 해밀턴、헤딩 두번 先制·同點골

2次리그

【마드리드1日外信＝綜合】12년만에 월드컵본선에 출전한 蘇聯은 2일새벽(한국시간) 속개된 스페인 월드컵대회 2次리그 A조1차전에서 벨기에를 1-0으로 제압했다。

또한 D조의 北아일랜드는 오스트리아와 2-2로 비겨 1무승부를 기록、5일 프랑스와 4강진출권을 놓고 격돌케 됐으며 오스트리아는 1무1패로 완전 탈락했다。

이날새벽 바르셀로나의 누캄프경기장에서 벌어진 A조 두번째경기에서 蘇聯은 앞서 폴란드에 3-0으로 패한바 있는 벨기에와 치열한 공방전끝에 후반3분 이번 월드컵대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코렌·오가네시얀의 결승골로 1-0으로 신승했다。

이로써 벨기에는 2패로 탈락이 확정됐으며、蘇聯은 5일 폴란드와의 경기결과에따라 준결승진출여부가 판가름나게된다。北아일랜드와 蘇聯은 모두 5일의 2차리그 최종전에서 이겨야만 준결승에 오르게된다。

이날 마드리드의 칼데론경기장에서 열린 北아일랜드-오스트리아전은 北아일랜드의 무대였다。

전반 27분 北아일랜드의 빌리·해밀턴은 절묘한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올린뒤 후반29분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려 두각을 보였다。

오스트리아는 후반 총반격전을펴 4분에 브루노·페리가、22분에는 교체선수로 나온 레인홀트·힌터마이어가 각각 1골씩 뽑아 한때 2-1로 역전리드를 잡았으나끝내 2-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2차리그제3일전적

▲A조
소련 1(0-0, 1-0)0 벨기에
(1승)　(2패)

▲D조
북아일랜드 2(1-0, 1-2)2 오스트리아
(1무)　(1무1패)

世界주니어·핸드볼 서울서 열릴듯

誘致활동 펴기로

85년의 제5회 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선수권대회가 서울서 열릴것 같다。

대한핸드볼협회 金宗河회장은 동대회 서울개최신청서를 이미 국제핸드볼연맹에제출했으며 오는8월17일 런던서 열리는 국제핸드볼연맹총회에 참석、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 예정이다。

金회장은 『그동안 국제핸드볼연맹 사무총장인 린케버거씨、부회장겸 아시아연맹회장 세이크·파드씨등으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았으며 런던총회서 서울개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85년대회 서울유치가 확정될 경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다。

全美탁구 우승

한국女子팀 日에 逆轉勝

釜山코카콜라선수들로 구성된 한국여자탁구팀이 82년도 全美오픈탁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일 미국 디트로이트市코보홀에서 속행된 여자단체결승전서 한국A팀의 申得花、鄭庚子는 日本 A팀의 와다(和田)、가와가시(川東)와 치열한 접전끝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단체전에 이어 벌어진 개인전에서 한국의 鄭庚子 申得花 朴末粉 洪美玉 張金玉 成賛美 金明心등 7명이 모두 2차전에 올랐다。

◇결승전적

▲단체전
한국A 3-2 일본A
申得花 2-1 和田
鄭庚子 0-2 川東
申得花 和田
鄭庚子 0-2 川東
申得花 2-0 川東
鄭庚子 2-0 花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답 ⑱

순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다그쳤다。눈빛이 발작을 일으킬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번들댔다。

『나도 그 동안 그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나한테 잘해준거 잊지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뭐가 자꾸 그래서니? 우린 어제 오늘만난 사이가 아니란 얘기지。이상 끝이야』

『아주 제법인데。그런 멋있는 러브스토리의 남자주인공이 그 못생긴 뻐드렁니만 아니면 좀 좋아』

말과는 달리 순자의 얼굴은 빨리빨리 질투에 물들고 있었다。오목이는 그게 민망해 얼른 눈길을 비켰다。

『망할것、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외모만 보니?』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 아뉴?』

순자가 한숨을 푹 쉬고 담배를 꼬나물었다。짤막한 손가락에 어울리지않게 길고 날카롭게 다듬은 새빨간 손톱 사이에서 타들어가는 담배를 볼때처럼 순자가 만신창이로 보인 적도 없었다。

『너한테도 곧 좋은 사람이 생길 거야』

『빈 말로 위로할 거 없어』

『빈 말이 아냐。나나 그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이 있어도 널 이대로 놔두지 않았을텐데』

『그 말 믿어둘테니 제발 그 뻐드렁니한테 그이 그이 안할수 없수。징그러워서 나 두드러기 날것같아』

순자가 등어리를 긁적거리며 말했다。

『너야말로 뻐드렁니 소리 좀 안할수 없니?』

『그럼 형부라고 그래 줄까?』

『요게 그냥』

오목이는 순자를 꼬집는 시늉을 하려다말고 새롭게 개척하고 길들여야할 생활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낙관과 무리에 대해 문득 연민을 느꼈다。여태껏 가정이란 그녀에게 찬란한 공상이었다。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구색을 갖춰야할 현실이었다。그녀는 그동안 낯익은 순자의 방을 새삼스럽게 휘둘러보았다。가난스러우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너절한 방구석에서 그녀는 속으로 더 있어야할 것을 보태기도하고 눈에 거슬리는것을 빼기도했다。뜻하지않게 순자의 방이 이제부터 그녀가 시작하려는 새로운 살림의 본보기가 되고있었다。

『언니가 부러워』

순자가 거짓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먹이 크다』、

처음 일환이 얘기를 비쳤을 때는 귓등으로도 안듣고 「밤차」에나가돈벌이하자고만 조르더니、오목이의 한번먹은 마음이 굳은 걸 알고부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일환이가 아직도 총각신세 못면하고있다는 걸 알아다준 순자의 수고에 대한 치하였다。

『정말은 언니야。그 뻐드렁니 얘기 내가 졸도록 꾸며댄거였어。알아본 거 하나도 없어』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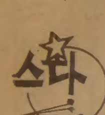
『놀라긴。그래도 일이 이렇게 잘 됐잖아? 여자하고 남자는 우선 붙여놓고 보는 게 수라구』

『망할 것。어쩐지…』

『왜 뭐가 잘못 됐수?』

『어쩐지 이상하다싶었어。그이가 독신이라는 건 가서 본 것처럼 자신있게 알아냈으면서 정작 어디서 뭐해 먹고 사는지는 못 알아왔었잖아?』

『그야 당연하지。꾸며댈게 따로 있지 나라고 뭐 아무거나 꾸며대는 줄 알우?』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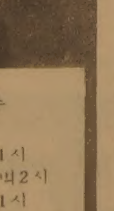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면
잡탕밥 전문
짬뽕
짜장면
※일요일은 휴업
658½ BLOOR ST. W.
☎ : 537-0432 김 신우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의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경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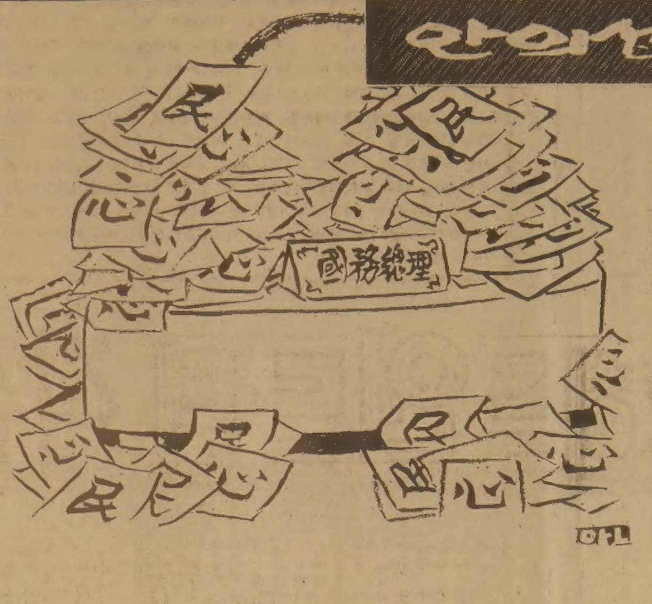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트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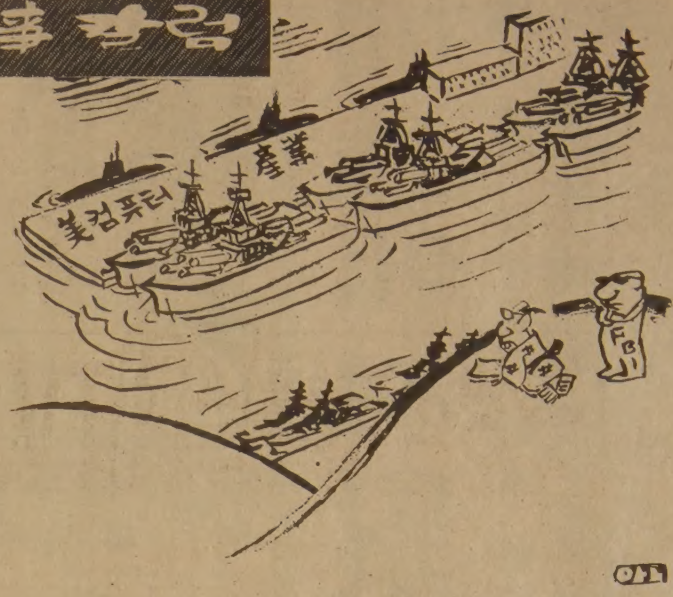
週刊한국

[illegible]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illegible]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안의섭 時事 캬리



이번에는 『수습』에 되겠지….



美·日 IC太平洋戰爭 前夜….

「한국 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李光洙의 「無情」

◇李光洙

주간女性 (416) 533-2361

형식은 그만 눈에 불이 번떡하면서 「흑」하고 툇마루에 뛰어 오르며 구두 신은 발로 영창을 힘껏 찼다. 영창은 와지끈 하고 소리를 내며 방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형식은 영창을 떠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고 발길로 차 넘겼다. 어떤 사람이 형식의 팔을 잡는다.

형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놈 배명식아!』

하고는 기가 막혀 말이 아니나온다.

형식은 아니 잡힌 팔로 배학감의 면상을 힘껏 때리고 아까 형식의 발길에 채여 거꾸러진 사람을 힘껏 이삼차나 발길로 찼다. 그사람은 저편 문을 열고 뛰어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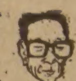
형식은, 『이놈 김현수야!』하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는 넘어져 쓰러진 영창을 들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흑흑 느낀다. 손과 발은 동여매였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는 찢겼다. 머리채는 풀려 등에 깔렸고 아랫입술에는 빨간 피가 흐른다. 〈作品중에서〉

■숨은 그림

갓 군인모자 송곳 브러지어 백로 붓 국자 단풍잎 파이프 팽이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⑧



●조루증 해소법

『이사전』을 보면 조루(早漏)라는 낱말이 있다. 명사로서 의학용어다. 성교할 때 남자의 사정작용이 너무 빠른 병으로 풀이되고 있다. 괄호치고 영어로 (Premature ejaculation) 기록되어 있다.

나이 들어서보다 나이가 어릴 때 노이로제에 걸리기 쉬운 병이다. 극히 정상인데도 혹시 조루가 아닌가 걱정하는 거다. 그래서 매춘부한테 실험을 해보고 이 정도면 장가들어도 무안 안당하겠느냐를 자문 구하는 적다. 문화영화나 포르노사진의 그것이 하도 거창한 시간과 크기를 지니고 있는 때문이다.

실은 조루병은 병으로 볼 수 없다. 극히 심리적이면서 상대적이다. 상대가 삽입 안된 상태에서도 기분 되게 좋아로 올라가면 족한 거다. 무쇠같은 물건이 두 시간을 퍼스톤 작용을 계속 해대도 상대방이 좋다고 올라가지 않으면 헛거다.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 동안도 기분이 째지게 좋으냐, 아니냐가 문제다. 이른바 느낌 좋으냐 (feeling good) 아니냐 (bad)의 갈림길을 놓가고 있는 게 인생이다.

그 분기점에서 기분 좋은 인생을 살다 가려면, 조루증의 진상을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조상이 쓴 글에 하절첩(夏節妾)이라는 게 있다.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나누어 본 성생활 풍속도를 그린 글이다. 춘삼(三) 하육(六) 추일(一) 동무(無)즉 봄에는 사흘 건너 접하고 여름에는 6일 건너 접하고 가을이 되면 하루 건너 접하고 겨울이 되면 매일 접해도 된다는 건강법이다.

그래서 가을에 결혼식이 많다. 그런데 여름에는 보신탕을 먹어도 무덥고 지친다. 흐르는 땀과 뜨거운 육체 두개가 합쳐 뭉굴면 극락 아닌 지옥이다.

노인이 소첩과 방사를 치르는데 양물의 기운이 없어 능히 스스로 물건하지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 손으로 쥐어 물어 넣으며 엎드려 가로되 『들어갔느냐.』『들어가지 않았읍니다.』 노인이 다시 일어나며 거듭 쥐어 넣어 넣고 엎드려 가로되 『지금은 들어갔느냐.』『안 들어왔읍니다.』 이와같이 하기를 사오차 반복함에 노인이 초조하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직도 안 들어갔느냐』하니 첩이 오히려 그 정상을 불쌍히 여겨 이에 일부러 답하되 『이제야 겨우 들어왔읍니다』하니 늙은이가 즐거기 한이 없는지라.

때에 양두는 오히려 기름장판지 위에 드리워 붙어서 냉기가 얼음과 같으니 노인은 오직 첩속에 들어가 있는줄로만 알고 그 첩에·이르기를 『너의 옴호가 가히 하절(夏節)에 합당하도다』하니 첩이 몰라 묻기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가로되 『너의 옴호 그 안이 심히 서늘하고 차가우니 말이다』하였다 하니 여는 진실로 양두가 아직도 밖에 있어서 차가운 기름장판에 문대고 있음을 모르고 첩의 옴호가 심히 서늘하다 느끼며 방사하더라.

이로써 겨울에는 뜨거워야 되고 여름에는 차가와야 일품이니라는 글이 진담록(陳談錄)에 기록되어 있다.

빠르나 늦으나 차나 더우나 이런 문제가 섹스생활에 관건을 쥐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미약(媚藥)이라는게 개발됐다. 진시황의 불로불사의 약, 아이누족의 연단법, 이집트의 강정계, 회담의 최음약, 그밖에 우리나라의 인삼등 수없이 많다. 그중 돈이 가장 안드는 강정법으로 냉수요법이라는게 있는데 신사 체면상 할때마다 냉수로 냉각시키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머자니 마늘이니 하는 것들도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무드에 금이 간다.

심리요법이 제일이다. 이런게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플레이 보이가 중년이 되었다. 포동포동한 20대 세색시를 안았다. 별 힘이 없다. 무쇠나 장작개비가 못되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 20대는 천만에 아니라는 거다.

장작개비는 고통만 주고 하나도 기분좋은게 없고 오히려 춘풍에 버들가지 흔들리듯 부드럽게 진입해주는 쪽이 너무나 좋아 자기는 중년 이상을 애인삼는다고 했다. 가식이 아니다. 어 답은 진리를 품고 있다.

즉 무쇠나 장작개비 같아야만 된다는 남자는 일반적인 생각에 뒤떨어지는 거다. 부드럽지만 삼천구심(三淺九深)법으로 세번은 부드럽고 얕게, 아홉번은 다소 깊게 혹은 그 역으로 아홉번은 부드럽게, 세번은 깊게 이러한 반복을 하는 동안 상대는 좋아 좋아로 오르는 거다.

심리적으로 서둘지 말것. 무쇠같지 못하다고 위축되지 말것. 길게 끌입 못했다고도 염두에 두지 말것. 다만 자기 페이스대로 그 언덕위에서나마 정신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는 염파(念波)를 보내면서 부드럽게 감싸주고 허위적거리면 상대방쪽은 그 부드러움으로 완전 삽입이 안된 경우도 이른바 오르가슴이라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요는 삽입 1초라도 상대방이 『아아, 나 좋아』의 경지에 이르면 조루가 아니다.

성행위는 남녀의 정신적 결합을 나타내는 거다. 자기 물건에 콤플렉스를 지니는 일은 금물이다. 정신결합을 또 한번 상승시켜 주는 것이 오르가슴이라면 자기나름의 자신으로도 충분하다. 둘이 함께 젖는다는 긴 시간을 서로가 합심 응시하는 눈이 열리면 조루(早漏)현상은 완전한 해결을 보게 된다.

〈계속〉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明洞일대를 무대로 악명을 날리던 소매치기단「작두파」 두목등이 경찰에 붙잡혔고 65명으로부터 해외취업을 미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삼킨 취업사기배들이 구속됐다。불철주야 범죄와 싸우는 경찰에게 지난 한 주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됐을까。섬뜩한 생각이 든다。또 고속순찰대에선 고속버스에다 동네 마늘을 판 대금 5백만원 뭉치를 놓고 내렸다 버스를 놓친 촌부(村夫)를 위해 버스를 따라가 돈뭉치와 제 좌석까지 찾아준 훈훈한 화제를 남겼다。상해진단서를 떼려면 최소한 5만원은 들어가야하는 폭행치상사건의 가난한 피해자들을 위해 시경이 새로 마련한 의사소견서제도도 경찰이 박수를 받을만한 제도도 지난 주부터 시작된 일—。경찰은「시민의 지팡이」임을 여러 곳에서 입증케 했다。더욱 올림픽등 국제경기를 앞두고 江東경찰서에선 경찰관에게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기 시작, 용(勇)과 지(智)의 경찰상이 기대되고 있다。한국일보「사건기자수첩」은 M16강도 모의범 일망타진등 여름 더위를 씻어줄만한 경찰개가의 메모가 많았다。

M16소총 강도모의 主犯
"張여인 같은 부잣집 털려…"

■황당무계한 한탕主義

▲이번 주의 사건기자수첩 주제는 M16소총강도모의사건이 될것같다。주범 李昌健(34·전과2범·서울시성북구정릉동16의206)、李의 동생 李昌植(23·서울시용산구한남동726의3358)、공범 李斗鉉등 3명은 검거됐고 이들의 모의에 가담했던 주범의 애인 申明蓮여인(33·서울시동대문구휘경동)은 19일저녁 투숙했던 서울시도봉구미아동 M여관에서 주범 李에 의해 목졸려 숨졌다。

이로써「이들 일당 4명의 황당무계한 한탕 털이」모의는 중도 분해되고 말았다。

이번 모의사건에 가담한 범인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해왔고 일찍부터 폭력을 휘둘러온 난폭한 성격자들이었다。

전남목포태생으로 중학2년을 중퇴한 주범 李昌健은 자기집에서 경영하던 대폿집에서 술심부름을 2년동안 했고、강원도 탄광산에 숨어들어 광부생활도 했다。그후에는 서울 예지동에서 8년동안 라디오·시계·전자제품의 중계상을 했다지만、브로커나 다름없는 직업이었다。

공범 李斗鉉은 강원도화천이 고향이다。학력·직업도 분명치않은 李는 18살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범행가담 직전까지도 다방、당구장을 떠돌면서 건달생활로 그날그날을 지내오다가 주범과 지난해부터 알게 됐었다。

총기를 부대에서 훔쳐온 주범의 동생 李昌植은 79년에 D공고를 졸업、전축공사장에서 일하다 군에 입대、지난4월28일 하사로 제대했는데 군복무때「한탕 하자」는 형의 제의를 받고 부대에서 총을 훔쳐내 왔던것이다。

범행모의에 홍일점으로 가담한 申明蓮여인은 19살때 광부 金모씨와 결혼한 유부녀로、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하다。申여인이 부정한 여자가 된것은 남편이 77년 서독 광부로 떠난 이후부터였다。

처음엔 남편이 부쳐주는 돈을 알뜰하게 모아 현재의 휘경동집을 장만하는등 착실히 살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그러다가 서울W호텔 나이트클럽에 나가면서부터 생활이 변했고、지난해 주범 李를 만나 불륜의 관계를 시작하면서는 탕녀가 되어버린 셈이다。

申여인은 두 딸을 가정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정릉3동에 전셋방을 얻어 李와 동거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집에 들어갔었다한다。아뭏든 申여인은 주범 李의 손에 죽어갔다。『가정을 가진 유부녀가 범죄에 가담해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남편이나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먼저 죽여달라』며 애원해 원피스 허리띠로 목졸랐다고 진술한 주범 李의 말대로라면 마지막 양심 한가닥은 살아있었던 것일까。

광부생활로 벌어보낸 남편의 돈 5백여만원을 정사비용등으로 날려 보내고 그 돈을 채우려는 흉측한 마음에서 끔찍한 범행에 끼어든 여자의 비극이 하나의 경고처럼 느껴지는 것이다。또『장영자 여인집 같은 부자집을 털어 가족과 없는 사람을 도와 주려고 했다。자신의 가난이 뼈저렸다』는 주범의 진술에서 무위도식하는 강력범들의 버릇을 읽을 수 있었다。

경찰에도 면도칼 휘두른 소매치기
마늘값 찾아준 시민지팡이

■대규모 해외취업사기

▲서울강남경찰서는 종업원에게 전치 5일의 가벼운 상처를 입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16의29 술집 신라회관주인 이동길씨(4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18일 새벽1시반께 신라회관안에서 종업원 이모(19)에게 새로 온 호스티스 黃모양(19)을 자기 방으로 데려오라 지시했으나 李군이 黃양의 부탁을 받고『지금 자리에 없다』고 말하자 거짓말 말라며 발길질을 해 전치 5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찰이 상해 5일정도의 피의자를 구속키로 한 것은 드문일인데 李씨가「전과 25범이며 소행이 괘씸하다는 것。담당판사도 틀림없이 영장을 발부해줄 것이라고 한 경찰간부는 장담。

▲대규모 해외취업 사기가 경찰에 걸려들었다。서울시경은 24일 서울시종로구낙원동123 광택엔지니어링 대표 정봉기(33)、전무 허만、브로커 홍우식(46·승일문화사대표) 김경식씨(30·부산시동래구장전1동152의4)등 6명을 사기 및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선규씨(45·광택엔지니어링 부사장)등 2명을 수배했다。

두쌍의 夫婦 칼라TV 詐取 히트·앤드·런 작전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78년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전기기술자 해외취업알선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80년11월부터 지금까지 승일문화사대표 홍씨등 브로커5명을 고용、노동부의 허가도 받지않은채 홍진선씨(28·부산시남구우암동189)등 65명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재비등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1백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범인들은 잡혔지만 그들이 사취한 현금을 되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38년만에 兄弟상봉

▲재일동포 단오절성묘단 일원으로 지난21일 귀국한 일본 오오사까시에 살고있는 노관수씨(57·토건업)가 그램을 내리자마자 꿈에도 그려오던 친형 노의수씨(66·인천시주안3동)와 극적으로 상봉、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노관수씨는 지난 38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토건업체를 차리고 정착했으나 조국에 살고있는 가족들과는 연락을 못해 애태우다가 이번 방문일정을 앞두고「행여나」하는 마음에서 치안본부 전산소의 컴퓨터조회를 부탁했던것이 뜻밖에도 형을 찾게 된것이다。

관수씨는 둘째형 의수씨를 만나면서 맏형인 연수씨(70)가 일본 도오꾜에 살고있다는 말을 듣자、『같은 일본땅에 살고있는 큰형의 소식도 모른 내가 못난 동생이라』고 울먹였다。

〈삽화·權大雄〉

▲명동일대를 주름잡으며 소매치기와 폭력을 일삼던

事件기자 수첩

醉客、총기살인 허위신고 하고 술깨 "내가 언제…"
교회鐘塔과 전철교각위서 "누명 벗겨달라"자살소동

일명「작두파」두목 배동응(29·전과5범·주거부정)과 부하 이규남(29·전과4범)·장재문(27·전과8범)등 일당 3명이 23일 중부경찰서 형사대에 검거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달7일 밤9시께 서울시 중구명동 동양증권앞 골목길에서 소매치기한 10만원짜리 가계수표 4장、현금 10만7천원등을 공범 임만덕(29)등과 나눠가지려다 현장을 본 중부서소속 서정수경장등 2명의 경찰관이 검거하려는 순간 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5주이상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었다。

서울시경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건가운데 가벼운 폭행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대신 의사소견서 만으로도 피해정도를 확인、처리하라고 각 경찰서에 시달했다。

시경측은 피해자가 병원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지 못할때에는 담당형사가 의사를 찾아가서 사건의 내용을 설명해준 다음 의사의 소견을 듣거나 소견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진단서대신 의사소견서

서경의 이같은 방침은 상해진단서의 비용이 최소 5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가난한 상해피해자들은 진단서를 떼지 못해 정확한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이다。

▲경기도 부천경찰서는 권총과 기관총을 든 괴한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하게 한 서병진씨(28·부천시원미동46)를 허위사실신고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22일 새벽0시20분께 서내 전라교회앞을 지나던 김동영씨(26)에게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권총과 기관총을 든 괴한이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줄것을 요구、이를 사실로 안 김씨가 북부파출소에 이 사실을 신고、20여명의 무장경찰이 긴급 출동、교회를 둘러싸고 작전을 펴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아침이 돼 술이 깬 서씨는『언제 내가 그런말을 했느냐』고 딱 잡아 떼더라는것。

▲한 마을 주민들이 판 마늘값 5백만원을 버스에 놓고 내린것을 뒤늦게 신고받은 고속순찰대가 30여분동안 검문작전을 펴 돈을 무사히 찾아줬다。

지난21일 하오5시께 충남천원군입장면 경부고속도로망향휴게소에서 서울발 포항행 한진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김영수씨(61·경북울진군서면대하리)가 같은 마을 40가구의 마늘을 서울 남대문시장에 운반해다 팔고 받은 5백만원 돈뭉치를 좌석에 놓고 화장실에 가려고 내렸다가 탔던 차를 찾지못해 방황하는사이에 한진고속은 그대로 떠나버렸다。

김씨의 이같은 사연을 전해들은 제2지구대202순찰차 문진설경사등 2명은 치안본부지령실에 이 사실을 긴급 보고하는한편 김씨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려 30분후인 5시30분께 충북청원군남이면 간이정거장에서 경기6바1032호 고속버스(운전사 손범기·50)를 발견、김씨를 다시 태워줬다。

■20代 두차례 자살미수劇

▲지난18일하오3시30분께 충남 대전시동구오정동51 기독교대한감리회 오정교회 지상21m 종탑위에 박철기씨(28·무직·대전시동구용운동원호주택15호)가 휘발유병을 든채 나일론끈으로 목매 자살하겠다며 6시10분까지 2시간40분동안이나 소란을 피웠다。박씨는 경찰이 철탑을 따라 올라가려하자『나는 부당한 판결로 옥살이를 했다。담당경찰과 검사를 만나게 해주지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면서 소리를 질러 경찰이 좇아올라가 마취시켜 끌어내렸다。

박씨는 지난8일하오8시께도 서울시성동구행당동66 공사중인 5m높이의 전철교각위에서 억울한 판결을 호소하면서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2시간만에 스스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50代가 의붓 아들이 시비하자 홧김에 스트리킹 市街 1km 달려
10代처녀가 길가던男高生위협
라이터行商 레지에털리고"女子멀리"맹세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가전제품대리점을 상대로 컬러TV를 전문적으로 사취해온 두쌍의 원정부부사기단 김영선여인(32·대구시서구내당동441)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여인의 남편 주영팔씨(35)와 김복식씨(36·경남 울주군 삼남면가천리)、김씨의 부인 이금식여인(3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3월22일 부산에 내려와 동래구연산7동1919 박모씨집 2칸짜리 방을 월15만원에 세들어 살면서 주씨가 4월1일하오7시께 동래구연산7동 삼성전자연산종합센터(주 박춘환·28)에서 14인치 컬러TV 1대를 1회불입금 2만원을 내고 월부로 구입했다。이때 김씨부부는 보증을 서는 숫법을 써 TV를 사취하는데 성공하자 4월9일까지 같은 숫법으로 모두 8개 대리점에서 컬러TV 8대(싯가 2백48만원상당)를 사취하고 대구로 달아났다가 김여인만 붙잡혔다。

▲경남충무경찰서는 대낮에 알몸으로 1km의 시가지를 뛰어 다닌 김길성씨(52·충무시문화동52)를 즉심에 넘겨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했다。

김씨는 지난21일하오1시반께 자기집에서부터 옷을 벗고 나와 스트리킹을 벌이면서 주위의 구경꾼들에게 고함과 폭언을 퍼부어 정신이상자의 행동으로 보고 경찰이 연행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씨의 이날 행동은 김씨의 의붓아들이 옷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화가 나서 아주 벗어버리고 길로 뛰어다녔다는 얘기。이때문에 김씨가 스트리킹을 벌인 1km의 시가지는 몰려든 구경꾼으로 20여분동안 교통이 막혔었다。

■주먹큰 처녀

▲경북안동에서는 10대 처녀가 술을 마시고 길가던 남고생을 위협한 사건이 화제다。

안동경찰서가 23일 즉심에 넘겨 2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한 金모양(17·대구시동구효목동)은 지난20일 밤11시40분께 안동시서부동 ○다방앞길에서 술에 얼큰해진 다음 지나가던 金모군(16·K고교1년)등 남학생2명을 불러세워『후배가 선배를 몰라본다』며 1백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30여분동안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金양은 경찰에 연행돼서도 근무경찰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는데、알고보니 2년전부터 태권도를 배워 1단실력의 무도인이었다는 것이다。

손큰 여자에 뒤이어 주먹큰 처녀까지 나온모양이라고 주민들은 수군댔다。

▲남자고등학생에게 완력에 못이겨 끌려가 욕을 당하기 직전의 여고생이 3층건물에서 뛰어내려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남 순천시내 모여고2년 김모양(17·여천군화정면)등 2명의 여고생은 지난13일 밤10시께 길을 가다 갑자기 달려든 3명의 남고생들에 의해 모 국민학교 3층으로 끌려갔다가 위기일보전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

경찰은 이날 여학생들을 희롱한 고교생 이군(17)、조군(17)등 3명을 강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깝게 사귀던 남자의「전재산」을 털어 달아났던 20대 다방 아가씨가 끈질긴 피해자의 추적끝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4일 조성곤씨(27·순천시동외동)가 잡아넘긴 정경숙양(21·전남광양군다압면금천리492)을 절도혐의로 구속했는데、정양은 동외동에 있는 Y다방 종업원으로 있을때 알게된 라이터행상 조씨가 자취하고있는 방에 들어가 돼지저금통속의 현금 5만7천원과 옷에 들어있던 40만원등 모두 48만원을 훔쳐 잠적했다가 전재산을 잃은 조씨의 추적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조씨는『마음씨 고운 아가씨인줄 알고 사귀다가 변을 당했다』며 앞으로는 여자를 멀리 하겠다고 맹세。

■강동경찰서 영어강좌

▲서울강동경찰서는 경찰서단위로는 처음인 전직원 영어회화강좌를 시작、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있을 국제스포츠대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기초영어회화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부터 대처하기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회화교육을 위해 강동서는 전직원을 갑·을조로 나눠 1일 1시간씩 1주에 4시간을 교육하고 있는데 강사로는 미국인 마이클·윌리엄즈씨、D·세자르·로버트씨등이 나오고있다。

〈기록·정리 事件班기자〉

카메라狂

어느 자연공원안의 매점에 한 중년 사내가 헐레벌떡 달려들어왔다。

『지금 내 처가 황소에 쫓기고 있단 말입니다!』

『뭐라구요? 그럼 여기 찾아 올게 아니라、빨리경비원을 찾으셔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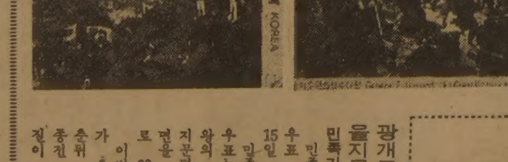
얘기의 샘

『아니요。경비원은 나중에 찾을테니까 빨리 부탁해요。』

『빨리라니? 뭘 말인가요?』

중년의 사내는 백에서 카메라를 꺼내 놓으면서 말했다。

『지금으로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주시오。이러다간 모처럼의 찬스를 놓치겠어。』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
을지문덕장군 살수대첩
민족기록화시리즈기념제1집

민족기록화 시리즈 기념우표 1집(사진)이 지난15일 발행됐다。

민족기록화 시리즈 제1집 우표는 2종으로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 장면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장면을 각각 디자인한 것으로 60원짜리 3백만장씩。

이번 기념우표는 체신부가 6도색 인쇄시설을 갖춘뒤 처음 발행한 것으로 종전 4도색 우표보다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살림의 지혜

구두 손질법

새 구두를 사서 신기전에 왁스를 발라두면 가죽에 상처가 나거나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아준다。구두약을 바를때 맨 먼저 얇게 발라야 광택이 잘 나고 가죽도 덜 상한다。너무 두껍게 바르면 가죽구두의 장점인 통기성이 나빠지고 가죽이 트기 쉽다。

가끔 클리너로 닦아내고 구두약층을 없애고 콜드크림으로 닦아주면 가죽이 훨씬 부드러워 진다。

빵가루 만드는 법

식빵을 적당히 썰어 햇볕에 2~3일 말린다음 바싹해지면 강판에 갈아 체로 친다。남은 덩어리는 절구에 빻아서 섞으면 품질이 좋은 빵가루가 된다。믹서가 있으면 잘게 부숴 넣고 조금씩 돌리면 빵가루를 간단히 만들 수 있다。이렇게 하면 사서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다。

〈삽화·權大雄〉

우산 손질법

우산은 손질을 잘해야 수명이 길어진다。우산을 펴놓고 솔로 가볍게 씻은후 물 1ℓ에 중성세제 5g정도를 녹여 천의 접촉 특히 접어지는 곳등을 가볍게 닦아 때를 제거한다。

그뒤 위에서 물을 끼얹어 비눗물을 깨끗이 뺀후 펴놓은 채로 줄에 걸어 말린다。젖은 우산은 손잡이가 밑으로 가도록 펴서 말리고 접어서 둘때도 손잡이가 밑으로 가도록 한다。

마른국수 맛있게 삶는 법

국수의 맛은 삶는 법에 따라 달라진다。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으려면 먼저 2~3분 찬물에 담근후 삶으면 된다。또 냉수에 헹구어 소쿠리에 건져낼때까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계속 손으로 씻으면 국수 특유의 기름내가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국수를 씻어낸 물이 미지근해지면 곧 찬물로 갈아 헹군다。미지근한 물에 헹군 국수는 윤기가 없고 덜 질기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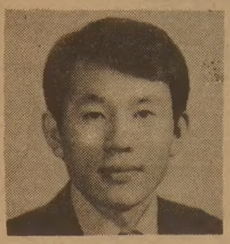
맥주·사이다 장기보관법

맥주나 사이다를 장기간 보존할때는 병을 거꾸로 세우고 움직이지 않게 하면 오래 간다。마개를 따고 마시다가 남은 것이라도 마개를 꼭 덮고 김이 새지 않게하여 거꾸로 세워두면 오랫동안 김이 빠지지 않는다。

탄산가스는 위로 올라가지만 새어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英語연구원장>


◇민병철 씨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5시에 차로 모시러 갈까요, 아니면 6시에 갈까요?」Shall I pick you up at 5 or 6? 이같은 경우 5시나 6시 모두「상관없읍니다.」「coke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7-up을 하시겠어요?」Would you care for a coke or a 7-up?「상관없읍니다」.

이와 같이「아무 경우나 괜찮다」,「상관없다」라고 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말로서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가 있다. 이 때,「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할 때는 to me를 붙여서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me. 라고 하면 되고,「그녀에게는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다」는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her. 라고하면된다.

같은 표현으로서는 It makes no difference. 나 It doesn't matter. It's all the same to me. 혹은 I have no preference. 가 있다.

pick up이란「차로 마중 나가다」라는 뜻 외에 물건을「가지러 가다」의 뜻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I'll pick up my passport tomorrow. (내일 여권을 찾으러 가겠다) When can I pick up my laundry? (언제 세탁물을 찾으러 올까요?) 이같이 사용된다.

A : Shall I pick you up at 3 or4?
B :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A : O.K., I'll pick you up at3.
B : Fine.
A : Shall we play tennis or golf on Sunday?
B :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 ×

A : Would you like to go to a play or a movie this evening?
B :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ichever you prefer.
A : I enjoy them both' so I'd like you to make the choice.
B : That is very considerate of you. If you really feel that way, I prefer seeing a play.
A : Great. I'll pick up two tickets for the play at the Blackstone.
B : Fine. I heard it is excellent.

× ×

A : 3시에 차로 모시러 갈까요, 아니면 4시에 갈까요?
B : 아무 때나 상관 없읍니다.
A : 좋습니다. 3시에모시러가지요
B : 좋아요.
A : 일요일에 정구를 하시겠어요, 혹은 골프를 하시겠어요?
B : 아무 것이나 상관 없읍니다.

× ×

A : 오늘 저녁에 연극을 보러 가시겠어요, 영화를 보러 가시겠어요
B : 아무 거나 상관 없읍니다. 좋으실대로 하시죠.
A : 저는 둘 다 좋아하니까 당신좋으실대로 선택하시죠.
B : 참 이해심도 많으시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연극을 보는 게 좋겠군요.
A : 좋습니다. 블랙스톤에서 연극표 두 장을 제가 구입하지요.
B : 좋아요. 그 연극이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 ×

preference : 더 좋아하는 것.
laundry : 세탁물. 발음이 「라운드리」가 아니고 「러언쥬리」임.
play : 연극.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海外걸작漫畵

『의사선생이 좀더 많은 실외오락을 권하더군.』
"My doctor suggested I get more outdoor recreation."

連載소설

人間市場 스물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1

지난 줄거리

춘찬은 서유리 사건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여여도 아파트의 비밀요정으로 황마담을 찾아 나섰다。황마담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춘찬의 불투명한 방문을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유도해 나갔다。이른바 연예인들의 찰거머리인 방송국 담당자와 손을 잡고 신인 컬러란 별명으로 고급 뚜장이 노릇을 하는 황마담은 보디가드를 불러들여 일전을 불사하게 만든다。

사내들은 황마담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황마담은 기 죽지 않는 네 표정에 잠깐 당황하는 눈치였다。

『너 어디서 왔냐?』

황마담이 거만하게 물었다。너무 배짱좋게 나가는 내가 미덥지 않아 보였던 모양이었다。

『서울서 왔다。어디서 온 게 그렇게 중요하슈?』

모처럼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선게 그녀에게 마음을 쓰이게 한 것 같았다。

『뭘 믿고 까부냐?』

『하나님 믿고 까불면 안되는 거유? 그렇지 않으면 염라대왕 믿구 까부는 거유。』

『없애!』

매몰찬 한마디였다。이쯤이면 신분을 밝힐 일인데 자꾸 만소리만 하는 것이 두려워할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다。

사내들이 들어왔다。

나는 껑충 뛰어 베란다 쪽으로 불어서 앞장선 녀석부터 걷어찼다。

『으윽!』

한 녀석이 고꾸라졌다。뒤미쳐 사내들이 합세했다。매듭공예품을 벗겨 사내들을 후렸다。사내들은 날 선 칼을 꺼내 들었다。

『이 새끼、죽인다。』

『아직 생명보험도 안들었다 이 자식아。』

나는 몸을 날려 치고 들어가며 차례로 가격했다。

사내들이 쭉 뻗어 누웠다。

『황마담、이리 오시지。』

황마담은 차갑게 나를 쏘아 보았다。독기 서린 눈매였다。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여서 다루기 쉽지 않을 것 같았다。더구나 나같이 풋내 나는 사내 정도는 상대조차 않던 여자였다。큰 손님만 상대하던 젓세가 역력하게 보였다。

『이리 오슈。당신 졸개들 자빠진 저 보면 오시는 게 상책이란 것 쯤은 알거요。』

황마담이 느릿느릿 걸어와 소파에 앉았다。앉음새가 퍽 요염했다。꼬고 앉은 다리 사이로 속치마 끝단과 희디흰 허벅지가 보였다。요염한 자태에 넘어가지 않을 사내가 없을 것 같았다。

『뭘 원하지?』

아직도 기 죽지 않은 말투였다。

『내가 뭘 원할 거 같소?』

『글쎄…。』

그녀는 더 요염하게 웃었다。

『왜 왔다고 생각하슈?』

나도 장난스럽게 물었다。

『용돈이 필요한 사내 같진 않은데?』

『그렇소。』

『그럼 내가 필요해?』

『잘 보셨소。당신이 몽땅 필요합니다。』

『내가 탐나면 말로 해야지。보채는 것도 풋내가 나는군。』

쉽게 넘어갈 배짱이 아니다 싶었다。

『풋내가 나는 것도 재미 있잖소?』

『어린게 뼈 삭으려고。』

『당신한테 뼈 좀 삭아 봅시다。풋내가 나는지 단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옷 벗어라。』

그녀는 일어섰다。웃옷을 벗어 소파에 던졌다。풍만한 육체였다。나는 그녀를 노려 보았다。

『부끄럽니?』

『벗어보슈。심사를 해봐야 내가 육심을 낼지 걷어찰지 정할 거 아뇨?』

『이게、어따 대고…。』

어린애 다투듯 말했다。

『이봐요、황마담。당신 지금 사람 잘못 보느라고 애 쓰고 있다는 걸 좀 알수 없소?』

『어쩌란 말야?』

『당신같은 고깃덩어리는 쎄고 쌨소。옷 주워입고 얌전하게 앉으슈。내가 몽땅 당신을 갖겠다는건 당신 모가지를 갖겠다는 거지、그따위 비게덩어리를 갖겠다는 게 아니니까。』

『뭐라구? 다시 한번 주둥아릴 놀려 봐? 이게 어따 대고…。』

제법 날 서는 목청이었다。나는 걸직하게 그녀를 잡아 소파 위로 팽개쳤다。그녀가 흐트러졌다。

『연미희라고 알지?』

『안다。』

『재일교포 청년실업자지 사기꾼한테 이백만원에 넘겨줬지?』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 남 일에 왜 신경 세워?』

『당신、내가 손대면 그 따위로 아가리 놀리진 못할 거야。여자란

괴고앉은 다리 새로 속치마 끝단과 흰 허벅지가 비쳐
몽땅 갖겠다는 건 비게덩어리가 아닌 당신 모가지야

참는게 아니라 당신 배짱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그 따위로 대답하면 용서 않겠어。정신 차리고 대답해。신인 탤런트나 가수들을 계속 팔아 먹을래? 아니면 손씻고 이런 장사나 할래?』

그녀는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웬만한 여자같으면 벌써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을 일이였다。비밀요정을 운영하는 여자라면 약자인데도 그녀는 무엇을 믿는지 당당하게 대들었다。

『당신이 팔아먹은 여자들、불쌍하지도 않아? 얼굴 팔고 이름 팔아서 출세 좀 해보겠다는 어린애들을 그렇게 꿇려 먹어야 시원하단 말야?』

『도대체 너 누구냐?』

쉽게 기 죽을 여자가 아닌 것 같았다。단단히 믿는데가 있는 것 같았다。하긴 믿는 데가 없이 소문난 여자로 찰거머리짓 할 순 없을 것 같았다。

『보다시피 사람이다。』

『사내답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그녀는 흐트러진 몸매를 가다듬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말하지。박부장 불러라。그리고 여기있는 애들 죄 불러라。』

『왜?』

『얘기 좀 해야겠다。』

『쓸데 없는 짓 않는 게 좋아。』

여전히 배짱 좋게 나왔다。

『분명히 말하겠다。수 틀리면 자살 내겠다。비밀 요정이든 네 빽이든 다 까발리겠다。무슨 말인가 알겠지?』

『안다。』

『빨리 불러라。』

그녀는 전화를 걸고 돌아섰다。건넌방에 있던 여자애들이 얌전하게 걸어왔다。낯익은 얼굴들이 네명이나 있었다。

『넌 탈렌트지?』

『…。』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넌 가수지?』

『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황마담。애들하고 하루 저녁 노는데 얼마야?』

황마담은 배시시 웃었다。

『오십만원 낼 배짱 있어?』

『걸레 데리고 자는데 무슨 오십만원 내야 해?』

계집애들 표정이 굳어졌다。

『큰소리 치지마라。네 손에 죽을 년 같으면 여태 살아있질 않았다。넌 내가 어떤 년인지 몰라서 그래。한마디만 하면 넌 뼈도 못찾게 돼。그러니 이쯤 했으면 흥정하자구。네 얘기 다 들어줄테니까。알았어?』

『나두 빽은 좀 있는 편이다。어떤 고관대작 빽인지 모르지만 한번 붙어보자。』

『까불면 정말 죽인다。』

『으호호호…。』

나는 황마담을 끌어내어 소파 위에 내던졌다。우유빛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잘 들어라。네가 팔아먹은 여자들이 어떻게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뭣좀 있다는 자식들한테 네가 얻어 처먹은 만큼은 토해내게 할테다。별놈 다 있겠지。쓸만한 애국자와 존경할 만한 지도자와 믿을만한 부자 늙은이들이 네 고객이라는 것도 안다。나 하나 쯤 쉽게 어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야。난 쉽게 안죽어。백살 넘게 살아 있어야 할 놈이다。영화배우 시켜 준다고 몸 뺏고 돈 울거 먹는 놈들이야 제 딸년 팔아먹을 소질까지 있으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넌 징이 좀 달라。출연을 미끼로 방송국의 수챗구멍에서 기어나온 찰거머리한테 여자를 팔아 넘기는것도 부족해서 걔들을 늙은 사내들한테 또 팔아 넘기는 건 내 눈으로 못봐 주겠어。』

『그래서 어쩔래?』

『돌아서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넣어줄테다。』

『놀구 있네。』

『잘 놀다 갈테니 두고 봐라。』

아무리 다그쳐도 황마담 배짱은꺾어지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황마담이 스위치를 가볍게 울렸다。화면에 방송가의 찰거머리 박부장 모습이 보였다。

『열어 줘라。』

황마담이 말했다。

『들어오세요。』

계집애가 문을 열어 주었다。박부장이 들어서다 말고 멈칫했다。

『박부장、들어오슈。기다리고 있었소。』

내가 문 앞으로 걸어가 박부장의 멱살을 잡아 소파 위로 내던졌다。박부장이 뒹굴었다。아까 제법 큰소리 치던 사내들이 한쪽 구석에 또그리고 앉아서 나뒹군 박부장을 쳐다 보고 있었다。

『무슨 일요?』

나와 황마담을 번갈아 쳐다보며 박부장이 물었다。

『박부장、잘 들어라。네가 그 유명한 방송국의 찰거머리냐? 생긴 게 찰거머리처럼 생겼다。탤런트、가수들 피 빨아먹어서 포얗게 살이 올랐구나。』

『무슨 말요?』

박부장이 정색을 했다。

『옷 벗어라。』

『예?』

『넥타이 풀고 팬티바람으로 서봐。』

『왜 이러십니까?』

『신체검사 좀 하자。도대체 찰거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뜯어좀 보자。빨리 벗어!』

박부장은 황마담과 둘러선 여자들을 재빨리 훑어 보았다。

『벗어요。』

황마담이 냉랭하게 말했다。그래도 박부장은 주춤거렸다。

『욱!』

박부장이 또 한번 나뒹굴었다。그리고는 서둘러 옷을 벗었다。

『꼼짝 말고 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신곡 틀어주는 데 얼마 받냐?』

『그건…。』

『좋다。당신들 다 들어가。』

나는 사람들을 모두 방으로 몰아넣고 전화줄을 잡아 뺐다。혹시 밖으로 연락해서 귀찮은 애들이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황마담 정도라면 내가 귀찮아 할만한 애들일지도 모른다。

『대중없읍니다。』

두려운 목소리였다。

『다 알고 왔다。수 틀리게 굴면 넌 그대로 끌고 나갈 테니까 알아서 계。내말 알아?』

『네。』

몇대 얻어맞은 박부장은 할수 없었는지 죄 털어 놓았다。

박부장은 계산에 철저한 찰거머리였다。인기 순위는 물론이지만 신곡곡을 틀어주는 데도 쥐약을 먹지않으면 안되는 사내였다。연속극에 출연시키는 것도 그의 계산은 철두철미했다。레코드 제작회사에서 오메박부장한테는 봉투를 전네 줄수 밖에 없었다。

그는 언제나 출세하려는 기회주의자 위에 군림했다
방송을 몇백만명 본다는걸 잊지말라、넌 낄낄거린 놈

봉투가 없어도 되는건 젊은 여자들이었다。능력을 인정받는것은 봉투와 육체의 잔치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싫은 탤런트나 가수들은 그런 흥정에 매달리는 사람보다 많았다。능력이 없는 탤런트나 가수로 전락할수 밖에 없었다。

연기력이 탁월하거나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은 박부장 손아귀에서 놀지 않았다。그는 언제나 출세하고 싶은 기회주의자위에 군림했다。

『이 자식아、너같은 자식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이 싸잡아 먹히잖아! 너같은 놈은 방송국 철탑위에 매달아도 시원찮은 놈야。』

『다시는 안그러겠읍니다。정말 입니다。』

『물론 다시 그러지야 않겠지。너같은 찰거머리들 할 얘긴 그것뿐이니까。』

『아닙니다。정말입니다。』

『네 재산 명세 좀 밝혀라。』

『별로 가진게 없읍니다。』

『이 자식이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줄 알아?』

박부장은 견딜 수 없었는지 비명을 지르며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나는 사정없이 걷어찼다。

『이 더러운 찰거머리야。가엾은 여자들 몸 뺏고 돈 챙겨서 잘 처먹고 잘 사는게 그렇게 좋대?돈 없으면 네 딸년이라도 팔 놈이지?』

『아닙니다。』

『그래、네 딸년은 귀중하고 남의 집 딸년은 네 눈깔 흘리는 대로 해도 괜찮다 이거냐?』

『그게 아닙니다。』

『네 버르장머리 고치려면 네 자식새끼들과 네 마누라를 여기 데려다 놓고 네 주둥아리로 다시 애길 시켜주마。방송을 몇백만명이 본다는 걸 잊지마라。넌 몇백만명을 우롱하고 낄낄거린 놈야。』

『선생님、제발…。』

박부장은 무릎을 꿇었다。나는 그런 박부장의 턱을 올려 붙였다。박부장이 내 발목을 잡고 애원했다。

『선생님、하라대로 다 할께요。』

『벗은 채로 나가라。내가 피킷을 만들어 줄테니。』

나는 정말 박부장의 죄목을 상세하게 적은 피킷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탤런트나 가수가 되어 이름자를 남기겠다는 열성파들을 출발지점서부터 간교한 술수로 더럽히는 이들을 그냥 두고 싶지는 않았다。연예인은 대중의 공동소유이지 이런 소수 찰거머리들의 독점물은 아닌 것이었다。

그들을 출연시키고 인기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걸 미끼로 황당한 관계를 꾸미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풍토를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런 작태는 세상 어디에나 있겠죠。사람 사는 곳엔 어디든 간계를 부리는 사람이 있겠죠。하나님 없으면 존재 가치도 없을 종교집단마저도 그런 간계가 난무한다는 걸 신문을 읽어서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간교한 소수는 늘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한가요? 지옥에 사람을 보내줘야 할 중대한 사명이 하나님에게도 있으신 겁니까?

탤런트나 가수들을 주무를 수 있는 건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중밖에 없읍니다。그것을 조작하는 소수는 대중을 우롱한 겁니다。결국 그들은 국민을 속이는 소수의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읍니다。

하나님。간악한 무리를 채찍을 휘둘러 내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젠 지쳤읍니까? 아니면 너무 노쇠해서 그럴 힘이 없는 겁니까。그도 아니면 될대로 되라는 겁니까。

대중에겐 우상이 필요합니다。탤런트나 가수나 운동선수나 과학자를 가리지 않고 우상이 필요합니다。그런 우상은 조금씩 조작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찰거머리들에게 대중의 우상이 놀아 먹히는건 용납해서 될일이 아닙니다。그들은 화려한 무대뒤에서 피눈물 나는 연습과 훈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하루 아침에 그런 훌륭한 연기나 가창 실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피부섞이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들 앞에 찰거머리떼가 나타나 그들의 또 다른 피를 빼앗기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직권남용이거나 직무태만인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하나님 재판소를 인간들이 설치할지 모릅니다。몸 조심하는게 상책입니다。

박부장은 쉽게 자술서를 쓰지 않았다。아무리 다그쳐도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두려고 했다。

『레코드 회사에서 얼마씩 받아 먹었는지 먼저 써라。그리고 가수나 탈렌트한테 빼앗아 챙긴 것도 차례로 써라。사기쳐서 자술서 쓸 생각은 말아라。자술서마저 사기쳤다간 넌 만수무강하지 못할테니까。』

박부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다。

『다시는 이런 짓 않겠읍니다。제가 사표를 내면 되잖읍니까。그정도면 제 마음 아시겠죠。제발、제발…。』

나는 박부장을 잡아 소파 구석에 구겨넣듯 처박아놓고 볼펜과 공책 한 권을 내밀었다。

『먼저 네가 자술서를 솔직하게 쓰는지부터 확인한 뒤에 결정하겠다。』

박부장은 기억을 더듬는지 눈을 감았다 뜨면서 끌쩍거리고 있었다。한참만에 박부장은 공책을 내밀었다。

『네 죄악상이 가관이다。이거 들고 지옥에 가면 마귀들도 너만은 함부로 못다루겠다。이 천하에 지렁이만도 못한 놈。』

나는 참지 못하고 몇 대 갈겨 버렸다。연예인들과 관련업체에서 뜯어먹은 게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많았다。녀석이 큰 몫은 빼고 썼겠지만 자잘하다고 생각하는 몫만해도 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다。

『황마담、이리 나오슈。』

내가 문을 열고 황마담을 불렀다。황마담 표정은 여전히 고자세를 노릴 수 있었다。

『나하고 잘 데가 있소。옷입고 따라 나오슈。』

『못갈거야 없지。너희들은 집 잘 봐라。걱정들 말고。』

나는 웃고 말았다。여자 배짱이 그만하면 됐다 싶었다。

황마담은 방문을 열고 옷을 뒤적거렸다。수백벌은 됨직한 옷만 넣는 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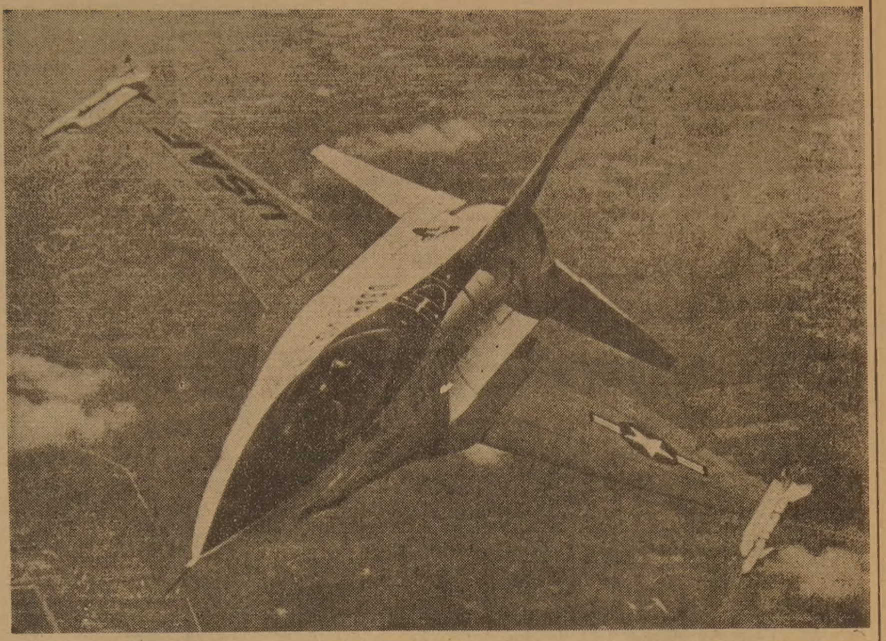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美F-16에 맥못춘 蘇 MIG-23

베카계곡 空中戰은 흡사 "별들의 戰爭"

전자무기 대결서 「샘」基地 박살나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미제 F—16전투기。빠르고 날쌘하고 정교하다。

공중 표적을 쏘는 사격연습은 아니었다。그러나 그런 착각을 일으킬만큼 이스라엘 공군기들의 승리는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좀 과장이 됐을지는 모르나 이스라엘 공군기에 의해 격추된 시리아의 소련제 MIG전투기는 모두 80대라고 발표되었다。그리고 레바논의 베카계곡에 설치된 시리아의 SAM—6대공 미사일진지 19개소가 일거에 박살이 나고 말았다。시리아 공군기들과의 공중전에서 미국이 만든 신예 비행기는 1대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악마의 마술」을 썼는가。그렇지는 않다。가공할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을뿐이다。적보다 우수한 장비、월등한 훈련、그리고 뛰어난 전술의 결실인 것이다。

베카계곡 상공에서 벌어진치열한 공중전에 이스라엘기는 90대、시리아기는 60대가 참가했다。그러나 숫적인 우열이 승부를 결정해준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파일러트는 엄격하게 선발됐을뿐아니라 피나는 훈련을 거쳐 고도의 전투의욕을 갖고있다。미국식훈련방식은 전투상황에서 개인의 기량을 강조한다。이에 비해 시리아의 조종사들은 소련의 전술교리대로 지상사령부의 통제밑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돼있다。그렇기때문에 실제 공중전에서 시리아공군조종사들은 순간 순간이 다르게 변하는 사태에 임기응변의 개인기량과 융통성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이스라엘機 90대、시리아機 60대가 참가
미그機 쪽못써 일거에 80대나 박살나고

소규모 공중 전투라면 몰라도 대규모 공중전에서 지상의 통제소가 공중전투상황에 맞추어 전투기의 작전을 지휘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더구나 이스라엘기들은 통신교란술법을 쓰기 때문에 시리아 조종사들은 지상에서 보내지는 지시를 도대체 들을 수조차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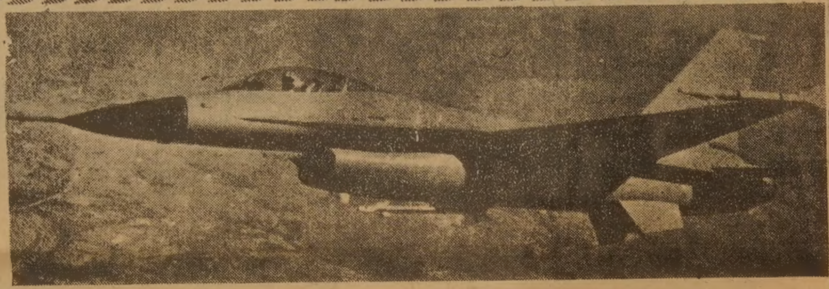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베카계곡에 설치된 시리아의 SAM 미사일 기지모형을 네게브 사막에 건조해놓고 몇 달 동안 파괴 훈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렇게 철저한 훈련을 받아 온데다 실전에서는 미국이 만든 소형 조기 경보기(MINI AWACS) E—2C호크아이기의 정찰 엄호까지 받게 되어 전투력은 배가 될 수 있었다。

E—2C기는 고공에 머물면서 정교한 레이다로 모든 지역을 샅샅이 감시、공중및 초저공、심지어 지상의 적동태、장비의 이동을 바늘로 찍듯이 포착해낸다。지상의 레이다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북괴의 대남게릴라 침투용 AN—2기도 E—2C기의 레이다를 속일수는 없을것이다。

◇시리아가 25대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미그 25。

시리아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뜨자마자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벌써 몇대가 어느방향에서 날아오는지를 알아버렸다。시리아의 지상레이다는 고공에 떠 있는 E—2C 호크아이기는 볼수 있었으나 전투기들은 볼수가 없었다。저공비행으로 날아왔기때문이다。이스라엘의 F15기는 기내에 컴퓨터를 싣고 있는데다 초정밀 레이다를 갖추고 있어 목표물의 48km 전방에서 그것을 포착、즉시 공격하는 세계최신예 항공기다。

이스라엘은 미국방성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비행기라고 자부하는 F—15기 40대를 보유하고 있다。F—15기는 열추적사이드와인더 4기、레이다가 유도하는 스패로 미사일 4기등 모두 8기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마하2・5의 속력으로 난다。83대의 F—16기와 1백38대의 팬텀 전폭기가 저공으로 침투、시리아의 샘 미사일기지를 폭격하는 동안 F—15기는 공중 엄호를 했다。



◇이스라엘의 F—15기。스패로미사일등 8발의 미사일을 장비로 갖추고 있다。

逆電波에 역전파대응…뒤쫓던 미사일 다 빗나가고
쉬라이크 空對地미사일 발사、샘주파수 추적 폭파

F—16기도 시리아가 띄운 소련의 신예기 MIG21、MIG23보다 훨씬 빠르고 기동성이 우수했다。시리아는 MIG25기 25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중전에 참가시키지 않았다。MIG25(일명 폭스바트)는 고공비행 요격기로서 공중전에서의 기동성은 떨어진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별 피해를 내지않고 SAM미사일 기지를 때려부순 것은 주목할만한 전파로 평가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보잉 707기를 개조、ECM(전자교란장치)를 갖추어 시리아의 레이다와 통신을 교란하는데 성공했다。이스라엘은 또 「와일드 위즐」(야생 족제비)이라는 전자장비를 사용했다。팬텀기가 장비한 「와일드 위즐」은 SAM레이다를 기만함과 동시 거기에 감응을 일으킨다。팬텀이 발사한 미사일은 와일드 위즐의 전파를 타고 목표에 정확히 명중、그것을 파괴했다。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F—15、F—16기는 모두「날으는 전자장비」로 불리고 있다。이 비행기들이 장비한 컴퓨터는 「헤드 업 디스플레이」(Head-up-display)또는 HUD로 불린다。조종사의 앞쪽 창에 설치돼 있고 필요한 다량의 데이다가 기억돼 있다。

베카계곡 상공을 음속으로 비행하면서 F—15기의 한 비행사는 컴퓨터화면에 나타난 4대의 적기를 포착했다。그리고 시리아의 SA—6미사일이 발사되려하자 화면엔 다시 섬광이 나타나고 헤드폰에서는 삑삑 경고음이 들렸다。

컴퓨터화된 ECM이 즉시 가동을 시작、시리아 레이다를 교란함으로써 비행기의 위치를 착각토록했다。동시에 적의 위협중 어느 것이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컴퓨터는 즉시 결정해 주었다。

SA—6가 발사됐다。시속 3천6백km속도로 돌진해 왔다。F—15기의 ECM이 집중적으로 SA—6의 전파교란을 개시했다。SA—6미사일의 레이다가 F—15기의 ECM에 대항하려 시도했다。그러나 SA—6는 F—15기의 ECM에 의해 궤도를 이탈、빗나가 버렸다。그러자 MIG21、23이 소제 공대공「아톨」미사일을 또 발사해왔다。이것도 역시 F—15기의 ECM이 표적을 빗나가도록 해주었다。

시리아 전투기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은 F—16기 파일러트는 HUD 화면에 나타난 적기의 영상을 보면서 컴퓨터가 지시해준「추적표지선」에 전모를 맞히고 1초동안 기관포를 갈겼다。1초 동안 1백발의 기관포가 적기를 벌집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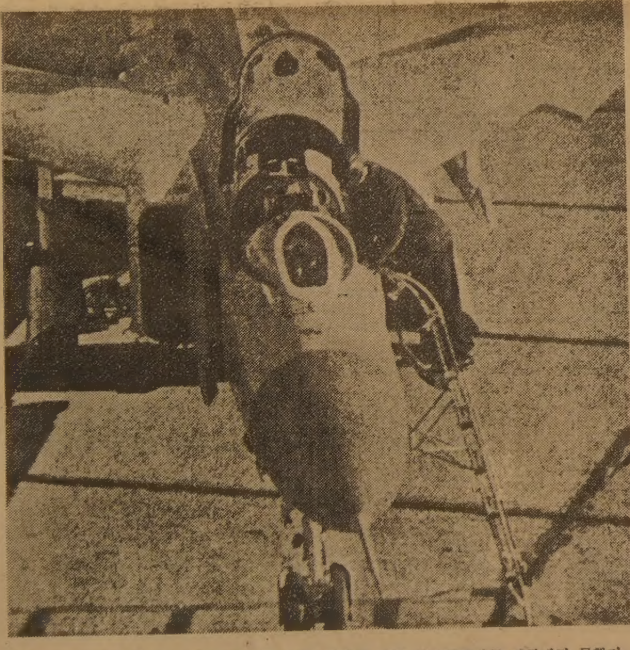
베카계곡의 공중전에서 이스라엘기에 격추된 MIG의 대부분은 그러나 기관포 보다는 포클랜드전투에서 시해리어기가 사용한 것과 같은 신형 사이드 와인더에 맞아 떨어졌다。

사이드 와인더는 목표 비행체를 적외선의 유도를 받아 명중시킨다。속도는 시속 2천6백40km、시리아기의 95%는 사이드 와인더 보다 속도가 느리다。

소형 조기경보기의 엄호받아 전투력배가
미그機 대부분 사이드와인더에 피격 추락

신형 사이드 와인더는 비행기 표면에 발생하는 공기마찰열에 감응을 일으킬 만큼 민감하다。특히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사이드 와인더는 미제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쉼없이 계속해 온 공중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정교하게 개량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또 별들의 전쟁에서 동원되는 무기만큼이나 정교하다는 공대지(空對地) 쉬라이크(shrike) 미사일을 사용했다。미국이 주로 지상의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레이다 추적장치」가 부착돼 있어 SAM 미사일의 주파수에 감응을 일으키면서 표적에 찾아간다。SAM의 주파수는 공습을 감행하기 전에 무인 비행기를 띄워 사전에 탐지해내게 된다。쉬라이크는 적의 전자교란도 극복해내는 위력을 갖고 있으며 40km 밖의 표적을 맞힌다。



◇시리아의 MIG 23기。성능・장비등 모든 면에서 미제 이스라엘기를 당해내지 못했다。

베카계곡에 있는 SAM기지중 몇개소는 매버릭 미사일 또는 스마트 폭탄이 파괴했다。이것들은 레이저 광(光)등으로 유도되는 것이며 오차는 목표에서 불과 1m정도에 불과할만큼 정확하다。속도는 비교적 느리다。

시리아의 MIG21、MIG23도 ECM과 조기경보시스템、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기와 마찬가지였다。그러나 미국이 만든 전자시스템만큼 강력하지도 못한것이어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이스라엘의 E—2C 조기경보기는 한꺼번에 2백50대의 적기를 4백80km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추적할수있는 위력을지니고있다。

이스라엘 공군기의 승리는 그야말로 장비와 파일러트의 기량、그리고 왕성한 전투의욕이 가져다준 결과인 것이다。

<한국일보 外信部 崔相鋼기자>

F-15, F-16과 MIG의 諸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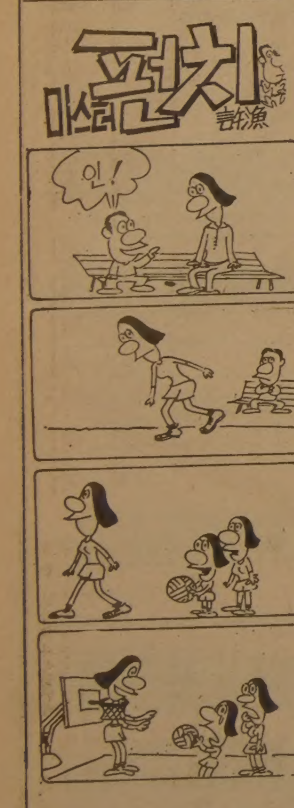
F—15 ▲속도=마하2・5▲전투행동반경3천2백km▲항속거리=4천km ▲全幅=13・05m ▲全長=19・45m▲全高=5・67m ▲중량=1만8천1백45kg ▲장비=20mm발칸포, 공대공미사일 스패로4기, 사이드와인더 4기, 폭탄 7천kg。

F—16 ▲속도=마하2・02▲전투행동반경=9백25km▲항속거리=3천 8백90km ▲길이=14・52m ▲폭=10m ▲높이=5m▲무게=9천kg (완전무장시 1만6천9백kg) ▲장비=M61 20mm포, 사이드와인더 2기, 공대지미사일 9기, 폭탄 6천9백kg。

MIG25 ▲최고속도=마하3・2 ▲持續최대속도=마하2・7 ▲길이=22・3m ▲폭=14・0m▲높이=5・6m ▲항속거리=4천km▲무게=1만5천4백20kg▲장비=기관포2, 미사일 4기, 폭탄6천7백26kg。

MIG23 ▲속도=마하2・3 ▲항속거리=2천5백km ▲길이=16・80m ▲무게=1만7백kg▲장비=미사일 4기, 기관포2, 로키트16 (57mm), 폭탄2천kg。

MIG21 ▲속도=마하2・10 ▲항속거리=1천8백km ▲길이=13・46m ▲장비=미사일 4기, 기관포2, 로키트4(2백40mm), 폭탄1천5백kg。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뽀뽀의 의미>

어느 집 담밑에서 두 남녀 꼬마가 놀고 있는데, 남자 꼬마가 갑자기 여자 꼬마를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자, 여자 꼬마는 『너, 나 책임질 수 있어?』라고 했다。

방계숙 (서울 중구 신당1동 298의 17 24통6반)

<사건 인플레 심리>

수십명 사망、몇천억대 사기같은 푸짐한 뉴스만 듣다보니 한자리 숫자 사건은 아예 흥미조차 없다。

장률 (한국낙서회)

<돌고 돈다>

술잔이 돌고 잡담이 돌고 노래가 돌고 취기가 돌고、그리고 술값은 누가 낼까 하고 서로의 눈치가 돌고 돈다。

—엉성한 친구들— 당나귀 기획

<어린이 입장불가>

그럼、「어른 입장불가」도 있어야 해요。

—어린이들— 큰아이 (동화나서인)

<용꿈을 꾸었는데>

야구장에서 홈런볼을 받으려다 눈을 맞아 퍼렇게 멍이 들었다。

—야구장에서— 열투와 고운이 (土月文友會)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장많이 꽂힌 국기?>

네팔기。

염리동호랑이(전국낙서문화회)

<가장 먼 이웃?>

이름조차 모르는 바로 옆집 사람。

동대지기

<하늘엔 눈이 두 개>

하나는 붉은 눈인 태양、하나는 노란 눈의 달、두 눈을 꽉 감으면 캄캄한 세상。

秋木 金天國 (土月文友會・서울성동구사근동 191의 4 11통4반)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12회 퀴즈>

<힌트>

■가로
1. 스캔들에 휘말린 여자 탤런트
3. 王位가 바뀐 나라
5. 생태계 파괴문제로 개발여부를 놓고 뉴스를 탄 서울의 洞名
7. 우리나라 대표적 영약
9.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
10. 여의도에 있는 3府중의 하나
11. 주먹 힘
12. 종교상 유서 깊고 거룩한 땅
14. 배구나 테니스 경기서 상대 코트에 넣는 첫공
16. 병원체가 어떤 생물체등에 옮아 퍼지는 병
18. 여행중 보고 들은것을 기술한 문장
19.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침

■세로
1、인류문화가 피어나기 이전 자연그대로의 삶을 누린 사람
2、축구경기중 이것을 두번 받은 선수는 퇴장당한
3、관청같은 곳서 잔심부름하는 소년
4、의상・건축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설계
6、광주와 계약을 맺고 그 광산의 일부를 채광하는 사람
8、유비・관우・장비가 첫 주인공으로 등장
9、취직할때 첫번째로 내야 하는 서류
12、50개의 흰 별이 있는 국기
13、6월14일 보사부가 전국에 주의보를 내린 전염병
15、대통령배 국제축구 공동우승국
16、전보의 국귀
17、병으로 인한 고통

<12회 正答은 13면에>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전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Part Time (시간당 $7.00)
건축일에 취미있으신 신체 건장한 35세 전후의 남자분 구 함. 전화 : 249-0003

유경험자 Store Helper(남자) 구함.
Full Time. 전화 : 422-3121 (Mr. 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가정에서 봉재일 하실분 연락바람.
전화 : 530-1046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20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입주하셔서 애기 보아주실 분 구함.
(월 $600지불) Jane & Weston
전화 : 447-1460 세시 이후에 연락바람.
(1살· 4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아이스크림 가게 Helper 구함 (유경험자)
Franchise도 가능함. 전화 : 752-4366 Mr. 박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큰 Shopping Centre안.
년 11만불 보장. 순이익 절반. 렌트: $650. 리스 갱신 가능.
영업시간: 월-수: 9시30-6시, 목-금.토 9시30-5시,
요구액: 3만불 + 스탁
연락처 : Montreal(514)-691-3704, 691-4751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 +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2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5년 전화 : 463-484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1) Dry Cleaning Pick Up Store
Weekly Turnover: $1,000. Asking Price: $35,000
3 year lease + 3 year option. Store + 4 Bed Rm.Apt.
May be leased or bought.
2) Donuts Shop
Weekly Turnover: $4,000. Asking Price: $135,000
$65,000 down. Rent: $2,000 5 year Lease + 3 year option
Mr. Ryu 762-8255
Royal Trust Real Estate Co.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Varity Store for Sale(Hamilton) 전화 1-529-7491
(1)Store with 3 Bed room House. 년매상: $110,000 계속증가.
(2)Business only. 년매상: $300,000+곧 써브머린 open(최고지역)

Food Store 급매.
시간 짧고 수익성 좋은 가게를 급매코져 함.
주매상 : $12,500이상
2038 Queen S. E.
꼭 관심있으신 분 오후 3시이후 내방 바람.

Smoke Shop for Sale
년매상 : $325,000 (Eglinton & Caledonia)
전화 : 635-8405 (Vitale)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매매 (Building & Business)
(3 Bed Rm Apt. + 2 Bed Rm Apt.) 포함.
주매상: $7,500이상. 아스킹: $185,000 전화: 1-898-4326 (Mr.신)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Convenience Store for Sale
미시사가 Clarkson 지역
전화 : 822-2247 (Sa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성업중인 선물가게 건물포함 매매.
Bloor 중심가에 있음. 663 Bloor St. W
꼭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월.화.수(9 a.m~7 p.m) 목.금(9 a.m~9 p.m)
토(9 a.m~5 p.m) Alfredo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매매 (2804 Dundas St. W.)
주매상 : $3,000 렌트 : $650 (살림집포함)
리스 : 5년 꼭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Downtown)
2 Bed Rm. Apt. 유학생 부부입니다.
전화 : 233-9534 (Mr. 정)

Room Mate 구함. (Finch & Weston)
2 Bed Room Apt 같이 나눠 쓰실분.
고층 Apt. 전화 : 222-3877 (Miss Kim)

성공적인 사업투자 !

침체된
당신의 사업을
한국일보 광고로
해결하세요.
지혜롭게
불경기를
극복하실 것입니다

☎ : 533-2361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열)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알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희소식!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

사은대매출

희소식!

기간 : 82년6월25일~82년12월25일까지 6개월간

금번 저희 한인식품구매주식회사 설립기념 스페샬 세일과 아울러 지난 6월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사의 "영수증과 상품의 무료교환"은 각식품점별 (삼복, 제일, 한밭, 서울동부, 서울서부지점)로 실시하오니 영수증 발행 식품점 에서만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SH REGISTER TAPE
(영수증) 모아오세요.

D.Y. 가주미

사뽀로 라면
1 Box

D.Y. 참기름

영수증과 교환

400달러 영수증에 -------- 50Lb 쌀 1포
300달러 영수증에 -------- D.Y. 고급참기름 1Gal —1캔
200달러 영수증에는 -------- 일본라면 24봉 1BOX

무료로 드림

SPECIAL 품목

쌀	50LB	15.95 — ~~17.95~~
회조개깐것	2.2LB	7.95 — ~~10.95~~
낙지	2.2LB	7.95 — ~~9.95~~
사뽀로라면		9.95
배추 BOX당		7.95
무우 자루당		9.95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울식품 서부	243—9544 (7월1일 개업)	1391 Weston Rd.